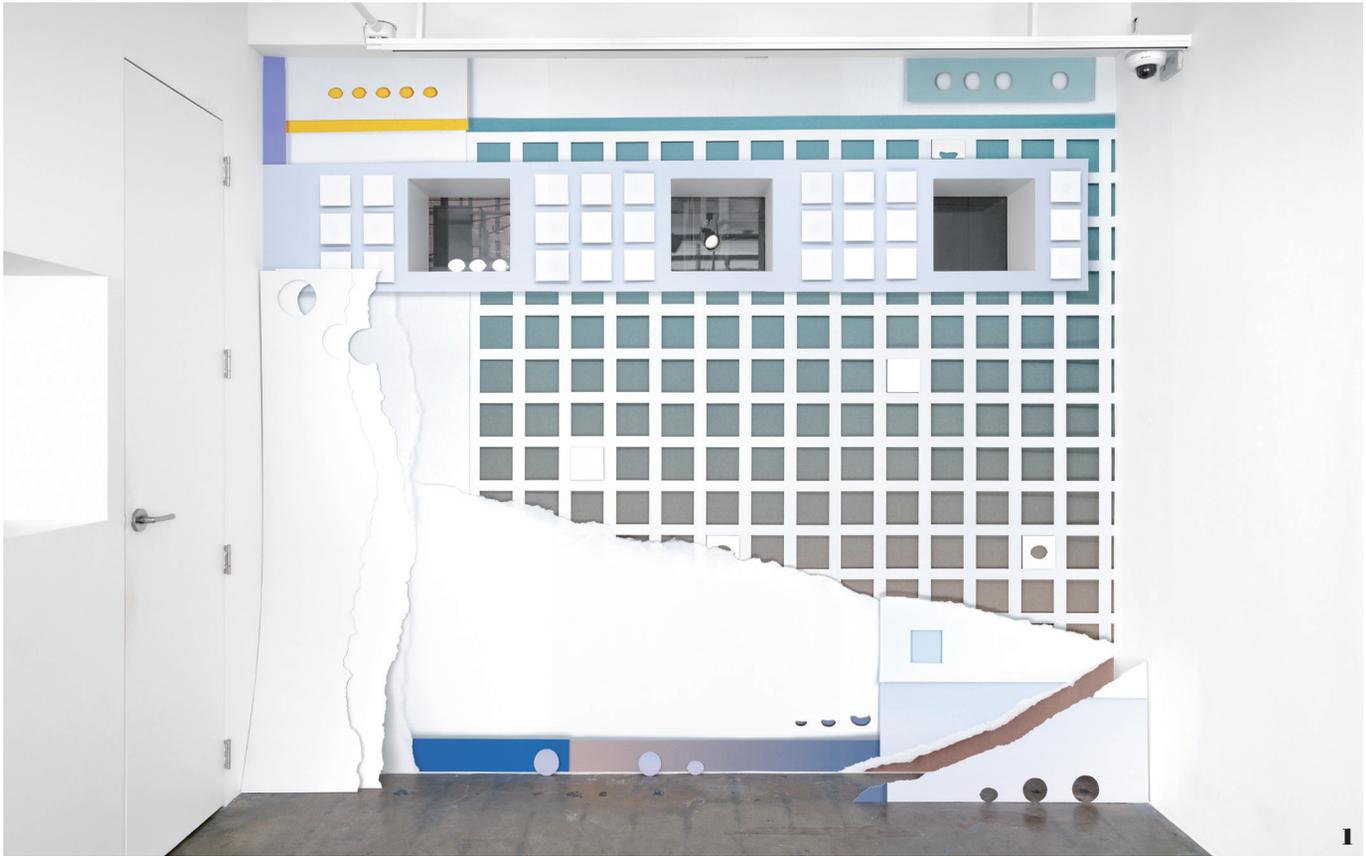


문화 +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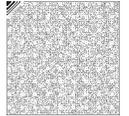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1 <Bric-à-Brac> 프린트 벽지, 나무에 아크릴릭, 석고 | 가변설치(벽지 283×338cm) | 2019
- 2 <Template of Hope> 캔버스에 유채, 나무에 에멀션 페인트
가변설치(패널 200×121.5×2cm) | 2018
- 3 <September> 나무에 유채 및 아크릴, 석고 | 53×55×4.5cm | 2019





이달의 표지 작가



서울과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유지영은 회화의 관습화된 조건을 의심하며 사용 가치에 따라 성립된 일상 속 대상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홍익대학교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슬레이드 미술대학을 졸업한 이래로 개인전 <One After Another>(2019, 전시공간) <앞지른 물>(2018, 레인보우큐브)과 국내외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8년 홍콩침례대학교 산하의 Kaitak Centre에서 초청받아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경험했고, 2017년 Beers London이 주관한 '제8회 Contemporary Visions'에 선정 작가로 참여했다. 2021년 현재 금천예술공장 12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나는 회화를 통해 어떤 대상이 '그 대상'으로 인식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탐구한다. 그 조건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당 개체를 사용해 온 방식이나 대상을 보고 어떤 쓰임일까 지레짐작하는 '기대의 역사'를 돌아봐야 하는데, 우리가 대상을 바라볼 때 일차로 주목하는 건 형태의 특징이나 물리적 조건보다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체의 독자성은 대체로 기능에 따른 쓰임으로 결정되기 마련이고, 부여받은 기능을 기준 삼아 다른 개체와 관계망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컵은 액체를 담아 마실 수 있는 용기(Container)로 기능하고 주로 찬장에 보관된다. 글은 번덕스러운 생각의 흐름을 문자로 고정해 일렬로 꿰어낸 결과물로 읽히기 좋도록 지면에 층층이 쌓이고, 그 지면에 한데 모여 완성된 책은 책꽂이에 꽂힌다. 경계 없는 시간의 계기는 특정 단위로 절단돼 달력이나 시간에 칸칸이 혹은 선형적으로 배치되고, 벽이나 책상 위에 자리한다. 이처럼 현실에서 어떤 대상을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배열의 체계나 당연하게 여기던 개체 간의 관계를 의심할 때 보통 작업이 시작된다. 회화 역시 비슷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회화를 더욱 포괄적인 '미적 사물'로 치환하고 해당 사물이 관례적 의미의 회화로 인지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좇다 보니, 화면이 전달하는 심상과 더불어 관습에 따라 굳어진 매체의 구조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회화가 담아내는 형상은 바탕이 되는 레이어의 바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틀에 고정된 천부터 공간으로 확장된 작품까지 존재하지만, 그 바탕이 무엇이든 지지체로 삼은 다른 요소의 테두리로 한정된다는 사실은 회화가 오롯이 화면 위 형상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여타 요인을 통제할 환경 같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고정돼야 한다고 생각한 조건들의 가변성을 인정하면, 회화는 무엇이든 대입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회화가 유기체의 피부라면 어떻게? 회화가 컵이라면 어떻게? 회화가 달력이나 시계가 된다면? 혹은 원고지가 된다면?' 내 작업은 다른 대상과 회화에서 찾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며 서로의 관계식을 대입하는 일종의 놀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Contents

2021 04 Vol. 170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김영민, 오니트(주)(이아림, 장영수)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우인혜, 윤솔아, 손유리, 송채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3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1년 3월 3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유지영

테마 토크

문화예술 분야 저작권

06 저작권 깊이보기 1

저작권, 여러 권리로 구성된 권리의 다발

08 저작권 깊이보기 2 문화예술 저작권법 세 가지 쟁점

10 에세이 스팍TV 운영자의 저작권 체험기

12 리포트 1 사례로 보는 저작권법

16 리포트 2 저작권 관련 업무·지원 기구

사람과 사람

18 문화인 소프라노 임선혜

24 작가의 방 정영주 배우·김윤정 안무가

26 서울 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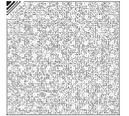
28 진실 혹은 대답 예술과 기술 융합주간 학계 토론회

이슈 & 토픽

34 쟁점 이견희 컬렉션과 미술품 물납제

36 화제 1 오디오 콘텐츠 열풍

38 화제 2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달빛노들'



공간, 공감

- 40 공간 앨버트 테일러 가옥 '딜쿠샤'
- 42 공감 1 뮤지컬 <포미닛>와 연극 <정의의 사람들>
- 44 공감 2 책 <도서관 생태마을에 삽니다>와 <전통시장 '읽어주는 책' 방송>

SOUL OF SEOUL

- 46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 ㉹
그들이 역사에 지은 평화와 평등과 자유의 농사
- 48 정지우의 설(說) 믿음과 현실이 불일치하고 어긋날 때
- 50 서울 건축 읽기
서울의 현대를 찾아서: 맨홀로 보는 서울의 현대
-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이태경 감독의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WEBZINE+

- 56 웹진 [비유] 현실을 딛고 선 문장
- 58 웹진 [연극in]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 60 웹진 [춤:in]
나와, 우리, 세계를 춤으로 잇는, 춤의 학교 최보결

62 4월의 서울문화매뉴얼

68 편집 후기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2021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n=129명,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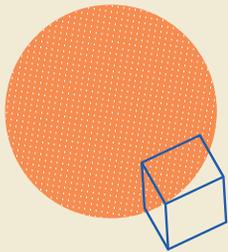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202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
2020년 9권 10호(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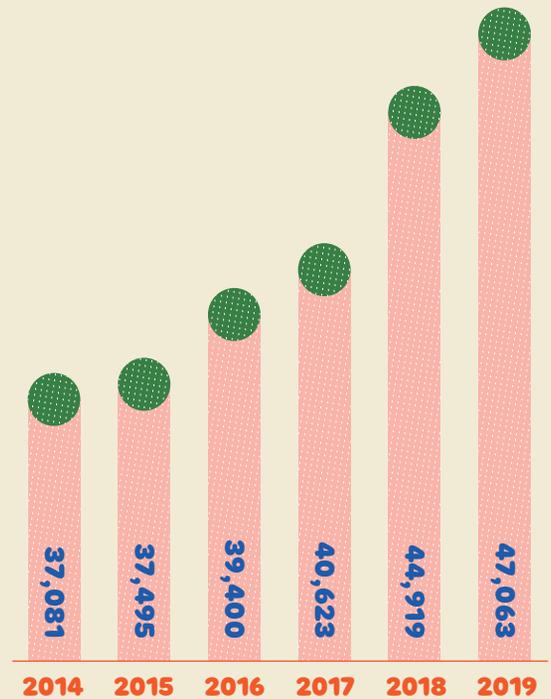
문화예술 분야 저작권

침해받지 않을 권리, 침해하지 않을 의무

예술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
복제와 재가공이 쉬운 온라인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원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표시하는 정도로만
여겨지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작자의 노고가 담긴 저작물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저작권에 대해 살펴본다.
창작자와 이용자의 인식과 지식 부족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를 소개하고,
창작 관련 계약 시의 유의 사항, 저작권법에 따른
조치와 해결 방법까지 상세하게 짚어본다.



창작 분야
저작물
등록 건수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존중하는 것이다

저작권, 여러 권리로 구성된 권리의 다발

환경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다시 이해해야 한다. 저작권도 마찬가지다. 바깥 상황은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저작권을 ‘저작권’으로만 이해하면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갈등을 만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창작자도 이용자도 사실 법과 친하지 않아 저작권을 잘 모른다. 창작자가 고생하며 만든 저작물의 가치를 다시 살필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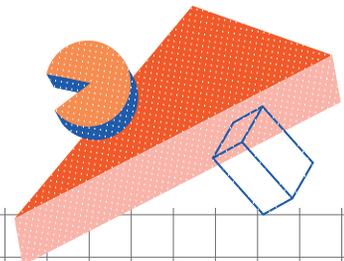
지난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의 등장은 다방면에서 우리 생활을 변화시켰다. 일이나 소비 같은 일상 요소부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식까지 오프라인을 떠나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그 과정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도 기존과 다른 양태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 사람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전시장이나 공연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고, 대부분의 문화 행사는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비대면 상황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좋은 뜻에서 유명 뮤지컬이나 연극 등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기 시작했고, 공연장을 가야만 볼 수 있었던 공연을 집 안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은 열광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감상이 점점 익숙해지고 동시에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등

장하기 시작했는데, BTS의 온라인 유료 콘서트에 동시 접속자 75만여 명이 몰리기도 하고, 미술계의 연례 주요 행사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온라인 뷰잉룸에서 그림을 전시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전시회’라는 용어가 자리 잡을 정도로 많은 전시장과 미술관은 VR(Virtual Reality)로 구현한 버추얼 전시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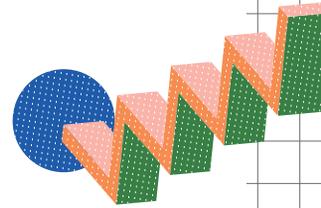
저작권과 일곱 쌍둥이

문화예술이 기존과 다른 형태로 생산되고 유통됨에 따라 기존과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현장에서 소비되는 방식과 달리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나 공연은 복제나 2차 가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특히 저작권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창작자의 권리라 알고 있는 ‘저작권’은 특정한 하나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리로 구성된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 총체를 일컫는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고, 저작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또다시 이용 형태에 따라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배포권·전시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 권리로 구분된다. 가령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권리는 복제권이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 전송할 수 있는 권리는 공중송신권, 연극이나 영화·음악 등은 상연·상영·연주 등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공연권이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단순히 저작권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중 어떠한 권리를 이용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정해야 한다. 저작물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활용되면 문제 되는 저작권도 달라지게 되므로 별도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하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관
 <한겨울 지나 봄 오듯, 세한 평안>
 VR 관람 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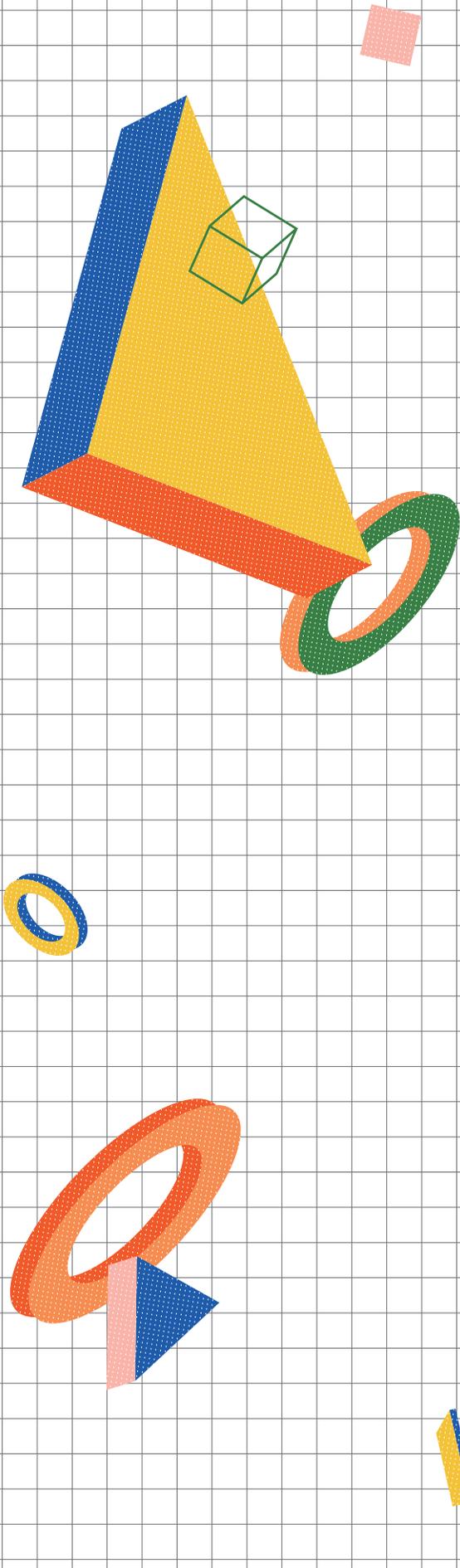
는데, 문제는 창작자나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인식 부족으로 정확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오프라인에서 미술 작품 전시회를 여는 경우 전시권이나 작품을 토대로 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복제권 정도가 문제 된다. 그러나 전시 장소를 온라인으로 옮긴다면 기존의 전시권·2차적저작물작성권·복제권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전송하는 권리인 공중송신권을 별도로 허락받아야 된다.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원본 작품과도 다름없는 고해상도의 사진 출력이 가능한 현실에서 온라인상에 작품 사진을 게재하는 일은 원본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창작자는 공중송신에 동의하는지, 동의하는 경우에도 해상도나 크기, 게재 기간 등의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살필 필요가 있다.

형태 따라, 이용 방식마다 달리 이해해야 할 저작권

또한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창작자가 감상용으로 대중에게 공개한 온라인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복제하거나 수정, 편집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최근에 어느 음악가가 클래식을 연주해 올린 동영상을 허락 없이 편집해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 판매

하다 음악가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이때 당사자는 클래식 음악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은 문제없다 큰 소리 쳤지만 이는 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이 별개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동영상에서 연주되는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연주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은 음악과는 별개로 영상저작물이 된다. 더구나 클래식을 연주한 음악가의 실연권도 문제가 되는데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지식에 기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은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성을 취득하기도 하고, 저작물의 이용 방식마다 문제 되는 권리도 달라진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예술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성을 강화시켰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쉽게 접근하고 재가공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온라인 예술이 창작자와 소비자를 이어주고 창작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과는 다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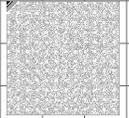
빠르게 변하는 예술 환경에서 저작권 문화 지키기

문화예술 저작권법 세 가지 쟁점

온라인 전시와 공연,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 비물질 매체 예술 창작의 증가, 장르 간 협업 예술, 여기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을 활용한 창작과 유통까지. 과학기술의 발달은 동시대 예술창작자들의 창작 및 유통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술 생태계가 변화하는 시기 예술창작자들이 알아둬야 할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현장 공연 및 전시를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기

예술창작물을 공연하고 전시하는 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공연이나 전시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현장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고, 코로나19 발발을 기점으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확장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술창작물을 전시·공연·유통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현행 법률상으로 온라인 공연·전시는 현장 공연·전시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이다. 저작권법상 공연권과 전시권은 각각 저작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공연기획사나 미술관, 갤러리 등은 공연 계약 또는 전시 계약 등을 통해 저작자인 예술창작자로부터 해당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 공연 또는 전시를 해왔다. 그런데 유튜브·웹사이트·포털·OTT 등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공연과 전시물을 올리는 것은 공연권·전시권과 구별되는 공중송신권에 해당된다. 특히 시간이나 장소의 제한이 있는 현장 공연·전시와



는 달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전시는 현장의 창작물을 고화질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재창작한 것이다. 이렇게 창작된 콘텐츠는 공간이나 시간의 한계를 넘어 무제한 반복 재생이 가능하다. 시각예술 창작물 역시 고화질 디지털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된 창작물은 가공을 통해 손쉽게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 수 있다. 계약상 이용 범위 및 방법 등을 적절히 제한하거나 저작물 보호장치를 하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 재복제·재가공·재유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공연·전시·유통을 고려하는 경우, 현장 공연이나 전시와는 달리 공중송신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고, 이용자 또는 중개자는 이 계약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현장 공연·전시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 공연·전시는 유료화할지, 유료화한다면 예술창작자에게는 저작권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등도 사전에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수집한 자료 활용하기

창작자들은 기존에 생산된 저작물을 활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도 한다. 사진 이미지든 영상물이든 사소한 범위 내 이용이라든지, 해당 저작물을 충분히 변형해 주된 것이 아닌 필요한 만큼만 이용한다. 이용한 저작물의 시장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는 공정한 이용으로 보고,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경우다. 이렇게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저작물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된다. 원저작물을 토대로 실질적 개변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 되므로 원저작자에게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 한다. 2차적저작물에 이르지 않더라도 원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정·변형하게 되면 저작권¹상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원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저작권¹상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온라인 데이터가

저작물이 아니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연구와 활용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을 개정함에 따라 가명 정보,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이 가능해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대체 불가능 토큰NFT에서의 활용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이어 최근에는 클럽하우스까지 SNS는 동시대인의 필수 플랫폼이 됐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가서 또는 야외 건축물이나 공공미술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이 일상이다. 이러한 플랫폼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다양한 예술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체험한 예술 현장을 섬네일 이미지를 만들어 SNS에 게시하는 자체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촬영한 사진 이미지나 영상물을 고화질 이미지로 복제해서 사적 이용 범위를 벗어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책을 읽다가 특정 구절이 마음에 들어 SNS나 블로그에 올리거나 오디오 채팅을 통해 일부 구절을 낭독하고 토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동화를 유튜브에 한장 한장 이미지를 보여주며 책 전체를 읽어준다거나 클럽하우스에서 책 전체를 낭독하거나 하는 일은 상업성 여부를 떠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하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허용이므로 저작자 표시나 출처 표시는 분명히 해야 저작권¹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대체 불가능 토큰NFT을 통해 콘텐츠를 발행하고 NFT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다. 플랫폼과 기술의 차이일 뿐 기존 저작권법의 지배를 받으므로 소장자는 해당 콘텐츠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계약을 통해 콘텐츠 생산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플랫폼에 발행해 판매해서도 안 된다.

¹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세 가지로 나눠 규정한다.



경고 먹었습니다

스팍TV 운영자의 저작권 체험기

필자는 작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스팍TV>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채널은 구글로부터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다. 아무 영상이나 올렸을 리가 없는데 스팍TV에 이런 경고라니. 당황한 마음을 추스르고 경위를 파악해 재단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결론은, 영상 자체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영상에 넣은 모든 저작물의 권리를 꼼꼼하게 살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꼭지에서 그 과정에 대한 ‘썰’을 풀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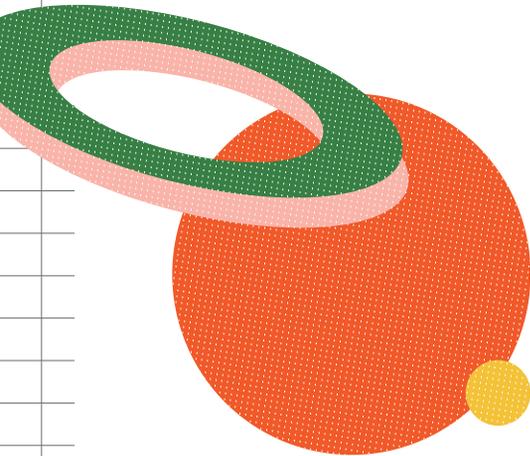
“저작권 위반 경고 1회: 저작권 소유자가 귀하의 동영상에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가 포함됐다고 판단해 동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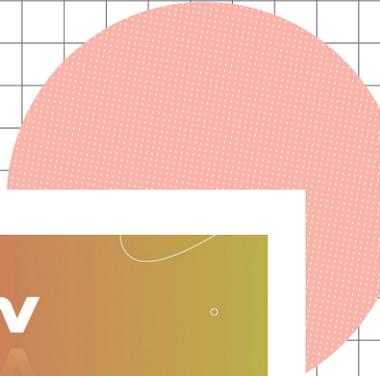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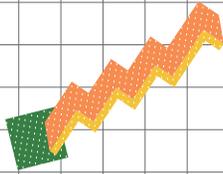
경고를 받은 영상은 2017년 생활문화MCN(이하 MCN) 사업 일환으로 제작된 것이다(현재는 삭제해 볼 수 없다). 앞부분은 음악 밴드의 연습 과정을 스케치하고 인터뷰한 영상을 재생하고, 후반부에 공연 현장을 담아낸 구성이었다. 유튜브 저작권 위반 경고를 꼼꼼히 살펴다가 마침내 찾아낸 위반 사항은 영상 마지막 부분 그룹의 공연 실황을 담은 과정에서 함께 녹음된 ‘음악’으로 추정됐다(유튜브에서는 위반 조항의 제목만 알려주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유튜브는 세 가지 조치 방법을 알려줬다. 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유튜브 저작권 학교 과정 수료 ② 신고자에게 직접 요청해 신고 철회 요청 ③ 반론 통지를 제출(법적 요청)하라고.

영상은 MCN이 만들었고, MCN과의 계약서에는 재단에도 영상의 저작권이 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신고자에게 신고 철회를 요청하고, 만약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반론 통지를 제출하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재단 고문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자문 내용은 정확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그리고 영리 목적이 아닌데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는지를 담았다. 자세한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Q 직접 제작하지 않은 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고를 스팍TV가 받는 게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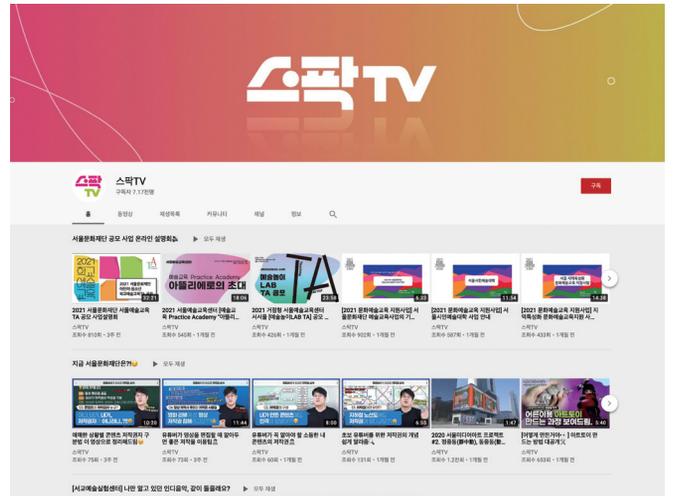
A 스팍TV를 운영하고 영상을 올린 주체가 재단이므로 경고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발 방지를 위해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사항이나 기타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보내준 계약서에 크리에이터 인력의 저작권법 문제 방지 의무가 누락됐습니다. 통상 이와 같은 용역계약 시에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에 저작권법을 포함한 일체의 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로 인해 갑이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클레임을 당한 경우 갑을 면책해야 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등과 같은 의무 조항을 넣습니다. 추후 용역계약서 작성 시 위와 같은 의무 조항을 기입하기 바랍니다.

Q ‘공정이용’으로 해석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재단과 재단의 활동은 영리 목적이 아니며, 스팍TV로 수익 창출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채널 목적에 따라 관련 콘텐츠를 ‘공정이용’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A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은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용 목적, 저작물의 종류·용도,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작물의 현재 가치나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단이 그 영상물로 수익을 얻지는 않지만,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재단이 훼손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재단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현재 또는 잠재 가치에 영향을 미쳐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건과 같은 경우를 공정이용으로 허용해 준다면 정부 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은 타인의 저작물을 사실상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조하세요.



서울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스팍TV> 갈무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결론을 말하자면, 신고자는 메일에 답변하지 않았다. 영상을 올린 재단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답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유튜브 저작권 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경고 소멸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계약서에 추가해야 하는 사항은 다행히도 몇 년 전부터 넣어 사용하고 있었다. 맥이 풀렸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음악이 모르는 곳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아차린 아티스트의 속상함보다는 못할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저작권 문화》가 있다. 감사하게도 위원회에서 재단으로 매달 보내주는데 이 사건 이후로 애독자가 됐다. 《저작권 문화》표지에는 작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이라는 부제가 쓰여 있다. 모두가 저작권에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글 송지나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자문 최희정 법무법인 별 변호사

저작권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례로 보는 저작권법

서울시는 저작권 침해·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등의 불법 행위에 취약한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를 보호 및 지원하고자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술·연극·출판 등 여러 분야의 문화예술인이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총 379건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 이 중 저작권 관련 사례 네 가지를 소개한다.

* 본 지면은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 분석집》내용 중 '저작권의 침해, 양도 및 이용허락'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사례'를 발췌해 구성했습니다.

* 관련 법령은 사례집 작성 당시 시행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비교적 자주 제·개정되므로 종합 법률 정보 등을 통해 항상 최신의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 법률 제16933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5797호

사례 1

출판사가 제 그림을 도용해 2차 창작물을 만들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Q 저는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예전에 같이 작업했던 출판사가 제 창작물을 그대로 베껴 그린 그림을 출판했습니다. 출판사는 2차 창작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주장하고, 이미 다른 출판물을 만들어 소득을 얻고 있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원저작자인 상담인의 동의가 없다면 어떤 경우이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출판사가 상담인의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닌, 출판사만의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했다면 2차적저작물이 될 것이나, 아니라면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강조하자면, 어떤 경우이든 상담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구제수단 저작권 침해 피해를 겪었다면, 상담인은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상 구제가 가능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로서,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출판사가 상품으로서 소득을 얻었다면 기간 제한 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구제로는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출판을 금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2

저작권 침해 관련해 후속 조치가 궁금합니다

Q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상대방인 A출판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A회사에서 의견을 나누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이후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도 조언 바랍니다.

A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액은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여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저작재산권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입증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이 결과보다 더 큰 경우에는 사실을 입증해 그 초과액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입증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등록돼 있다면 사실상 변론 종결 전에 침해된 저작물의 개수를 입증해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위 조항을 참조해 침해받은 저작물의 생산·판매 수량·판매처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길 바라며, A회사가 협조적이라면 A회사에 문의해 자료를 확보하길 바랍니다. 상담인이 A회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므로 당사자끼리 협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A회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저작권 침해 구제수단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저작권법 알쓸신법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생략)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권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 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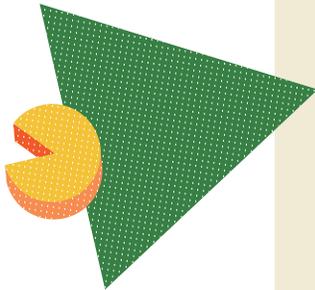
-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해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저작권법 알쓸신법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5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 ① 저작권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권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례 3

매절계약은 저작권 양도계약과 다른 건가요?

Q 저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출판사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양도계약이 흔히들 얘기하는 매절계약과 차이가 있을까요?

A 매절^{買切}이란 일본에서 온 단어로 ‘저작권법’에서 언급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매절이라는 용어를 실무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상담인과 같이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매절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매절계약이란 저작물의 이용 대가를 판매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미리 일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매절계약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이용허락 계약임을 주장하게 되고,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저작권 양도계약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매절계약’이라는 문언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계약서의 전체 내용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인지,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절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저작권 양도계약임이 명확하게 표시됐다면 저작권 양도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절계약의 문제점이 대두된 사건으로는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절계약으로 인해 출판사는 4,4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음에도 작가의 수입은 1,850만 원에 불과했던 사건으로, 저작권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모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름빵》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작품 성공에 대한 어떠한 이익도 공유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례
4

2차적저작물 권리를 양도하기 싫는데 계약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Q 저는 일러스트 작가로, 동화책 전집 중 한 권에 대한 일러스트(총 12페이지)를 맡았습니다. 기획사가 보낸 계약을 보면 일러스트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번 출판 일러스트 저작권만 양도를 원해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는 예시와 같이 '캐릭터 상품권화'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서 보내왔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A 상담인이 기획사와 체결한 계약은 제목부터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서'로 기재돼 있습니다. 계약은 제목·제호보다 계약의 내용을 보고 실질을 파악하지만, 계약서의 내용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제목부터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로 수정한 후, 아래와 같이 수정된 내용을 기획사에 요청하기 바랍니다.

기획사가 제공한 계약서 제1조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입니다.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특약이 없는 한 양도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저작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다른 지분권과 일체로 양도할 수밖에 없도록 해 저작자인 상담인에게 불리합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가치는 저작물이 1차 매체(출판 등)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적정하게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조항은 저작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도 부당하게 제한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의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획사가 상담인의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위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임을 주장하기 바랍니다.

계약서 예시

제목: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서

제1조(저작권의 양도)

- ①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 및 기타 캐릭터 상품권화·상표권 등 관련 지적재산권 일체를 을에게 영구적으로 양도한다.
- ② 제1항에 표시된 저작권의 전부라 함은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저작권 수출권·2차적저작물 작성권·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을 의미한다.
- ③ 제2항에 표시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라 함은 위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게임·캐릭터·속편 및 시리즈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 ④ 제3항에 표시된 저작물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와 논의한다.(단 총 매출이 30만 원 초과가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의 총 매출은 수수료·중개료·홍보비·출판사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

수정 계약서

제목: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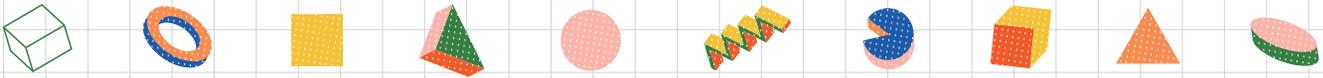
제1조(저작권의 이용허락)

- ① 갑은 을이 동화책 전집(○○○제목)을 출판함에 있어 그 중 12페이지 분량에 위 저작물을 복제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② 을은 위 1항과 같이 갑으로부터 이용허락 받은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한다. 사용의 방식은 복제·공중송신·전시·배포 등 서적(전자서적 포함)으로 활용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포함한다.
- ③ 을이 위 1항 및 2항에서 사용을 허락 받은 범위 이외의 저작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다.
- ④ 삭제

창작물 권리 보호, 이곳을 참고하세요

저작권 관련 업무·지원 기구

온 정성을 다해 만든 저작물을 누군가 허락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훔쳐 쓴다면 얼마나 허망할까. 분노가 일어도 저작권 침해를 처음 겪는 창작자는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어디 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 다행히도 다양한 기관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 조정하는 양팔저울파

저작권 등록·상당·교육 등 지면에 전부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저작권 업무를 하는 곳이다. 저작권 때문에 골치 아프다면, 우선 이곳에서 정보를 찾아보자. 특히나 저작권 문제로 법원까지 가야 하나 고민했다면 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 조정’을 고려하면 좋다. 정식 재판 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 시간·비용을 많이 소모하는 법원 판결에 비해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문제를 처리한다. 비용도 최대 10만 원으로 저렴하다. 쌍방이 합의했거나, 조정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누리집 copyright.or.kr | 상담전화 1800-5455



문화체육관광부

흠어진 정보 정리한 잠학다식파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주요정책-정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를 차례차례 따라가 보자. 2018년에 만든 ‘저작권의 모든 것’에서 깔끔히 정리된 저작권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시간을 들여 저작권을 제대로 알고 싶지만, 책을 읽기는 싫다면 추천한다. ‘저작권 일반상식’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으로 나눠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만 골라 읽을 수 있도록 분류했다. 또 세부 항목으로 나뉘는데, 한 항목당 짧으면 3분, 조금 길면 10분 정도 소요된다.

누리집 mcst.go.kr | 저작권정책과 044-203-2475

간밀히
소통하는 음악,
사회적으로
건강한 음악

소프라노 임선혜





최근, 물론 오래전에도, 소프라노 임선혜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테너 존 노와 함께 동요 음반 <고향의 봄>을 발매하고, 뮤지컬 <팬텀>의 주연을 맡았다.

또 세계 최초로 어빈 슐호프 Erwin Schulhoff의 가곡 전 곡을 녹음한 음반을 발매해 독일 음반비평가상을 받았다.

모두 2월과 3월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 그를 서면 인터뷰로 만나봤다.

유럽의 거실에서 오디오를 켜놓고 인근 공연장 시즌북을 뒤적이는 음악 팬들에게 ‘Sunhae Im’이라는 이름은 모차르트나 헨델의 오페라, 바흐의 교회음악으로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 봄, 한국에서 임선혜라는 이름은 훨씬 더 다면적이다. 3월엔 브리튼이 랭보의 시에 곡을 붙인 1940년작 가곡집 <일뤼미니시옹>을 서울시향과 협연했고, 4월 4일 통영국제음악제에서 모차르트 <레퀴엠>에 출연한다. 여수 예술마루에서는 비슷한 시대 슐호프와 말러, 베르크의 근대 가곡을 노래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3월 샤롯데시어터에서 열린 뮤지컬 <팬텀>에 그는 주연 크리스틴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로서는 세 번째 맡는 크리스틴이다. 최근 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발매한 동요 앨범 <고향의 봄>에서는 단순함 속에 청아함이 깃든 노래뿐 아니라 휘파람 실력까지 선보였다. 그는 각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색깔을 드러내는 다면체일까.

임선혜를 가르친 은사들

“내가 고음악을 찾아간 게 아니라 고음악이 나를 찾아왔죠.” 임선혜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고음악이란 좁게는 바로크 이전, 넓게는 19세기 중반 정밀 가공 기술이 발전하고 공연장이 커지면서 악기와 연주 양식이 크게 변하기 이전의 음악을 말한다.

음악가들과 애호가들이 말하는 ‘고음악’은 대부분 그 시대의 음악을, 당대의 악기와 스타일을 되살리는 연주를 뜻한다. 그 음악이 어떻게 그를 찾아왔을까. 임선혜의 길을 만들어준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다. 그는 끼가 많은 어린이였다. 가수들의 노래와 배우들의 표정 연기를 그럴싸하게 흉내 내곤 했다. 성당 성가대 지휘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성가곡도 곧잘 불렀다.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전국 단위 성악 콩쿠르에 나가 수상하곤 했다. 뒤늦게 정한 성악의 길이었지만, 당당히 서울대에 입학했다. 푸치니에서 차이콥스키의 오페라까지 소화하는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를 동경했다. “믿기 힘들겠지만, 소리가 가장 큰 학생 중 하나였죠.”

서울대에서 만난 박노경 교수는 그를 다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칭찬을 듣지 못해서 못한다고 여기시는 줄 알았어요. 내게 관심이 있으시긴 한 걸까…” 뒤에야 “선혜가 더 가볍게 노래하고 고음이 뚫리면, 자기 목소리에 맞는 역할을 하며 외국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몇몇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선생님은 저를 그렇게 ‘요리해’ 나가셨어요.”

그는 자신이 질투가 많다고 했다. 라이벌을 의식하거나 ‘치고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면 스승은 얘기하곤 했다. “선혜야, 혼자보다 누가 같이 다닐 때가 좋을 때다.” 그 얘기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지금도 노학 은사에게 레슨을 받는다. 여전히 쓴소리를 하신다고. “이 정도만 해도 남들은 잘한다고 하겠지만,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니”라며.

그는 작년에 타계한 롤란트 헤르만 선생이 “좋은 가수는 세 번

“내가 고음악을 찾아간 게 아니라
고음악이 나를 찾아왔죠.”



임선혜 20주년 콘서트 <Songs on the Breeze: 바람에 실려온 노래들>

째 귀가 필요하다”고 한 얘기를 상기했다. 자기의 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뜻한다. “그런 귀가 있느냐에 따라 가수로서의 내 생명과 길이가 정해질 거야.” 카를스루에 음대에서 그를 지도한 폴란트 헤르만은 지난해 11월에 세상을 떠났다. 84세였다. 자녀가 없는 그의 상주 역할을 임선혜가 했다. 지난해 12월 한화클래식 공연을 마치고 독일에 도착할 때까지 장례식도 미뤄졌다.

고음악의 거장들을 만나다

밀레니엄이 막을 내리던 1999년 12월, 그는 전화를 받는다. “필립 헤레베헤가 모차르트 C단조 미사를 지휘하는데, 예정된 소프라노가 무대에 설 수 없대. 이 곡 노래해 본 적 있어?” 없었다. 하지만 ‘있다’고 대답했다. “어디서?” “응, 한국, 서울에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헤레베헤는 고음악과 교회음악의 이름

난 거장이었다. 기회를 붙잡고 싶었다. “브뤼셀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악보를 달달 외웠어요.” 열흘 뒤, 헤레베헤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열리는 모차르트 아리아 콘서트 무대에 전격적으로 그를 세웠다.

수년 뒤, 헤레베헤는 오래갈 인연으로 임선혜를 이끌었다. “선혜, 알다시피 나는 오페라는 안 해. 야콥스는 교회음악도 하고 오페라도 하잖아. 그에게는 네가, 내게는 그가 필요할 거야.” 그렇게 고음악계의 또 다른 거장인 르네 야콥스와의 협업이 시작됐다. 두 사람의 협업은 바흐 <마태 수난곡> <요한 수난곡>과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돈조반니> 등 여러 오페라와 <올란도> <아그리피나> 등 헨델 오페라 같은 음반계의 찬사를 휩쓴 앨범들을 남겼다.

언젠가 필자는 임선혜에게 “두 사람 모두 ‘호기심 천국’ 같은 면이 많았다”고 말한 일이 있었다. 임선혜는 2019년부터 예술의전당 매거진에 ‘소프라노 임선혜의 오페라 & 오라토리오’를 기고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에서 카라바조의 그림을, 몬테베르디의 오페라에서 ‘말하듯 노래하는’ 당대 양식의 변화를 들여다본 그의 탐구는 손대는 음반 해설지마다 뚝뚝하게 만들어 버리는 야콥스의 화려한 지적 여정과 비슷하다.

그는 웃으며 “고음악 스페셜리스트들은 대체로 ‘외골수 탐구가’ 같은 면이 있다. 야콥스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가 전하는 야콥스는 ‘문자중독’이다. 음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매일 각국 언어로 된 뉴스 채널을 5~6개씩 시청한다. 시사 외 다양한 분야에 상식을 갖추지 않으면 쉽게 친해질 수 없다. 한 번은 인스브루크 고음악 페스티벌에서 기자들 앞에 마주 앉았는데 질문이 기대 이하라며 기자들을 혼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야콥스는 타인의 지적 탐구도 기꺼이 공감하는 지휘자다. “야콥스는 토론을 즐겨요. 내가 갖고 있는 논점이 확실하면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해볼까?’ 하고 선뜻 수용하죠.”

어린 시절 ‘책벌레’로 동서 고전을 섭렵한 임선혜도 그런 ‘탐구가’형 예술가다. 필자가 처음 본 임선혜의 무대가 도니체티 <사랑의 묘약>이었다. 남주인공 네모리노는 1막에서 임선혜를 바라보며 “Essa legge, studia, impara” 그녀는 책 읽고, 공부하고, 배우지”라고 노래한다. 임선혜는 늘 책 읽고 공부하고 배운다.



고음악은 소통, 연주자가 즐길 때 청중도 즐긴다

임선혜는 여러 차례 “고음악은 긴밀히 소통하는 음악이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음악”이라고 말해왔다. 확실히 모차르트 오페라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운 중창은 ‘프리마돈나(오페라의 여 주인공을 맡은 소프라노 가수)와 프리모 우오모(오페라에서 주역을 맡은 남성 가수)가 소리를 질러 상대를 압도하려 했던’ 1950~1960년대 유럽 푸치니 오페라 무대의 풍경과는 다르다. “서양음악은 계속 모든 것이 커졌어요.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며 더 넓어진 공연장을 채우기 위해 소리도 커지고 음높이도 올라가고, 더 자극적이고 다이내믹한 것을 찾았죠. 혼자 무대를 압도하는 것도 재미있고 박진감 있지만, 음악가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을 때 듣는 사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휴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연주자들이 무대를 즐길 때 청중이 비로소 그것을 느끼고 즐긴다고 확신한다. 그런 모습, 연주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즐기는 모습을 청중이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음악이 고음악의 영역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어쩌면 그의 성격과도 닮지 않았을까. 그가 옛 오페라에서 맡아온 역할들을 보면 대개 ‘지혜’와 ‘야심’이 두드러진다. 다른 사람들이 허둥지둥할 때도 계획이 있고, 계획을 잘 실천해서 목적인 바를 이루는 여주인공들이다.

그는 “우선 캐스팅할 때 목소리와 신체가 나와 잘 맞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경묘한 목소리와 서구인에 비해 무대에서 날렵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아담한 키가 있다. “배역에 나 같은 면이 있으면 맞아서 재미있고, 다르면 나와 다른 면을 무대에서 살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죠.” 어떨 때는 ‘착하지 않은 역’을 할 때 속이 땀 뚝리기도 한다. “이왕 명석을 깔아놨으니, 실제 삶에서 못하는 걸 뻔뻔스럽게 펼쳐내는 거죠.”

가장 공감이 가는 역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의 수잔나다. “백작부인을 보면서 상처가 안 되게 조심조심하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동참해 주고, 어려워 보일 때 마음이 움직이죠. 그러면서도 명랑하고, 저 같지 않나요?”

어려운 이들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는 그는 가톨릭 신앙인이다. 레퍼토리 중심에 바흐와 헨델 등의 교회음악 핵심 레퍼토리가 들어 있어 축복일 것이다.

그는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말한다. 한 세대 전에 유럽에 온 동양인에게는 바흐나 브람스의 교회음악이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대부분 자국 가수들이었다. 그런 벽이 깨진 시대에 유럽에 진출해 행운이었다.

한 동료의 말은 그의 마음에 상처도 남겼지만 깊이 생각할 거리도 남겼다. “너는 여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네 노래를 들으면 뭔가 느껴지네. 너는 잘 따라 하는 ‘앵무새’니?”

과연 그럴까. 스스로 해답을 얻기 전에 답을 들려준 사람도 야콥스였다. 그는 “유럽인은 이 곡들이 쓰일 당시의 영성靈性을 잃었다. 그런데 너는 그 영성을 들려줬다.”고 말했다. 요즘은 유럽에서 “너는 신자니까 교회음악을 잘 해석하는 거지?”라며 반대 측면의 선입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다고 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그 후

임선혜는 고음악에 ‘간헐’ 소프라노가 아니다. 벨칸토 시대의 도니체티, 20세기로 접어드는 말리의 곡도 노래했다. 그래도 최근 발매한 20세기 작곡가 슈호프의 가곡집은 얼마간 새롭게 느껴진다. 그의 날렵한 음색에 잘라 맞춘 듯 들어맞는다.

“슈호프를 탐구하던 음악학자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슈호프 가곡 음반을 만들려 하는데 저를 쓰고 싶다고, 놀랐어요. 그동



안독일어로 된 가곡 음반을 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첫 만남에서 악보를 처음 읽으며 40여 곡을 부르면서 색다른 매력을 느꼈다. “제가 처음 녹음하니까, 제가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슈베르트의 음반을 만든다면 기존의 명연들을 의식하게 되지만 이걸 그런 게 없잖아요?”

3월 서울시향과 협연한 브리튼 〈일뤼미나시옹〉은 지휘자 최수열이 처음부터 임선혜를 염두에 두고 선곡했다. 제안을 받자마자 “평소 하고 싶은 곡이었다”라고 말했다. 브리튼의 작품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곡은 아니다.

중잡을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한 랭보의 가사는 프랑스인들조차 파악이 쉽지 않기로 유명하다. 서점에서 랭보 해석의 전문서를 발견하고는 ‘심봤다’며 손뼉을 쳤다. “책을 안 봤으면 해석이 안드로메다로 갈 뻔했죠. 20세기 이후 음악에는 역시 고음악처럼 흥분되는 순간이 많아요.”

한편으로, 대중에게 그는 ‘클래식 성악가’보다 〈퀵〉의 ‘크리스틴’으로 더 낫다. 2015년 이 작품 한국 초연 때 이후 올해 세 번째다. 다르게 느껴지는 영역에 어떻게 이끌리게 됐을까.

“어릴 때 가요도 잘 따라 불렀지만 성악을 하게 된 뒤에는 잊었어요. ‘전혀 다른 끼가 있어야 돼. 아무나 못 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생각했죠. 성악을 전공한 친구 몇몇이 그쪽으로 진출하는 걸 보고 ‘저쪽도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섭외는 〈퀵〉 미국 연출가로부터 들어왔다. 유튜브에서 그의 노래를 듣고 연락했다고 한다. 두 시간만 주면 설득할 수 있다고, 그의 말대로 설득당했다.

해보니 ‘한 살이라도 어린 지금 안 했으면 후회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업예술에 대해 흔히 평가절하하는 말들이 있죠. 이 세계에 참여해 보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열하더군요. 한 치도 오차가 없도록 매번 다시 연습하는 모습에 반성이 되는 면이 적잖았어요.”

욕심이 나는 뮤지컬도 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뮤지컬은 “우리가 알아온 뮤지컬 이상”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 번스타인의 〈윈더풀 타운〉을 한번 해보고 싶다. “금관의 빵빵한 연주가 많이 나오는데, 천재적 작품이에요.”

“배역에 나 같은 면이 있으면 맞아서 재미있고, 다르면 나와 다른 면을 무대에서 살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죠.”

욕심이 드는 새로운 영역은 또 있다.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가 앙드레 프레빈 반주로 낸 재즈 음반을 듣고 ‘저런 멋진 음반을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맥네어는 프레빈과 했지만 나는 누구와 하지?’ 라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지만 클래식한 재즈 음반을 꼭 내고 싶어요. 바로크와 재즈는 공통점이 많죠. 즉흥 연주가 많이 들어가고, 연주자들이 정말로 긴밀하게 소통해야 해요.”

호기심 넘치는 그의 봄날은 언제까지일까. 그와 수많은 작업을 함께한 음반사 하모니아 문디의 아티스트 담당 디렉터 에바 쿠타즈는 평소 그에게 “너는 늘 좋아지고 있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처음엔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계속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줄 알았죠. 마흔 살이 넘으면서 비로소 ‘그 말이 칭찬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올해 초 쿠타즈가 사망한 뒤 슬픔에 잠겨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에게 이메일을 썼다. 핑크는 답신에서 평소 쿠타즈가 “나는 선혜가 엄청나다고 생각해”라고 말하곤 했다는 얘기를 들려줬다.

“소프라노는 전성기가 빨리 저물죠. 어떨 때는 5년만 더 해야지 싶다가도, 어느 날 연주를 마치고 나면 15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쿠타즈의 말처럼 ‘어떤 면에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내려올 때 서운하지 않도록, 즐겁고 의미 있는 작업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 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음악방송 진행자가 되고 싶다”고 그는 넌지시 귀띔했다. 그의 풍부한 지식과 통통 튀는 말솜씨가 어울리면 어떤 폭발력을 낼지 알 수 없다. 5년 또는 15년 뒤의 음악방송 진행자들은 긴장할지이다.

배우에서 프로듀서로



“막중한 책임감이 주는 스트레스를 즐기고 있어요.”

초연 당시 전 좌석이 매진됐을 뿐 아니라 그해 열린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작품성까지 인정받은 <베르나르다 알바>의 정영주 배우가 3년 만의 재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시엔 주연으로만 참여했는데 이번엔 주연과 함께 직접 프로듀서까지 맡아 무대 안팎의 살림을 책임졌다. 그때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배우들이 더블캐스팅이고, 무대디자인과 연출이 크게 바뀌었

어요. 독립적이며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차별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또 다른 <베르나르다 알바>가 만들어지길 고민했어요.”

1930년대 스페인 한 농가를 배경으로 한 <베르나르다 알바>는 남편의 8년상을 치르면서 다섯 딸에게 극도의 절제를 강요하는 가정을 그렸다. 외부와 단절된 채 진행되는 억압과 통제가 결국엔 파국을 맞는다는 이야기인데, 원작에 등장하는 10명의 여성 캐릭터에 맞춰 10명의 여자 배우만 무대에 오르는 보기 드문 시도를 하기도 했다.

“광적인 페미니즘에 속하지 않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인간 군상이며, 가족 간의 관계·갈등을 나열한 모녀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프로듀서를 처음 맡으면서 새롭게 뽑은 배우들의 오디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20여 년간 응시자 위치였는데, 심사하는 곳에 있으니 쉽지 않네요. 하지만 다양한 작품을 본 것이 좋은 경험이 됐죠. 이전 적 재적소에 자리해 줘 든든합니다.” 무엇보다 2021년 정동극장의 첫 작품으로 선정될 만큼 기대를 모았으며, 정영주는 공연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극장에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또 코로나를 뚫고 공연장을 찾은 관객에게 이렇게 말했다. “숨은 그림, 다른 그림을 찾아보세요. 초연을 보신 분은 복기의 기쁨을, 처음 보신 분은 심장의 떨림을 느끼길 바랍니다.”

정영주 배우

정영주는 서울예술대학 극작과를 졸업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2020) <베르나르다 알바>(2018) <레베카>(2017) <모차르트!>(2016) 등, 방송 <열여덟의 순간> <황금정원> <열혈사제>(2019) <나의 아저씨>(2018) 등에 참여했다. 제5회 서울 웹페스트 영화제 여우조연상(2019), 제3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여우조연상(2019) 등을 받았다.





소통 과잉 속 참 소통 찾기

“이전보다 더 큰 힘을 가졌는데, 우리는 왜 더 행복하지 못할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우수 창작 레퍼토리를 발굴하는 '공연 예술창작산실' 무용 부문에 선정된 <그런데 사과는 왜 까먹었 습니까?〉를 제작한 김윤정 안무가가 이렇게 물었다.

이번에 선정된 무용 작품 대부분이 “가치와 철학을 담은 동시 대 담론을 형성하고 오브제를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인간의 행복을 고민하는 김윤정 안무가는 인류사에서 중대 사건의 소재였던 ‘사과’에 주목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로 시작해 인류에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일깨워준 과학자 뉴턴의 사과, 신기술의 위력을 선보인 애플의 스마트폰까지. ‘사과’는 태초의 인류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금까지 필요악으로 인식되는 알고리즘으로 상징된다.

“선악과를 베어 몰자 낙원에서 쫓겨났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신에게서 멀어졌잖아요. 우리는 스마트폰 덕분에 편리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에 지배받고 있지 않나요?”

이처럼 김 씨는 역사·종교·철학 영역을 넘어 인간의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를 위해 무대 위에선 스마트폰에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든지, 미디어에 동화돼 시선을 뺏긴 채 춤을 춘다든지, 마지막엔 어린 아이에서 여자와 노인으로 성장해 세상을 향해 경고장을 던지



는 장면이 나온다. 이를 통해 김 안무가는 관객에게 바라는 점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인터넷 세상에서 ‘탈진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과 너무 쉽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지금, 진짜 소통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요.”

글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김윤정 안무가

김윤정은 이화여대 대학원, EDDC 네덜란드 안하임 예술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NRW 주정부 젊은 예술가 해외 연수 지원자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Du@〉<Inter-View〉<심판〉<완벽한 사랑〉<더 라스트 월〉<울프〉<문워크〉<아인말〉<미팅유〉<베케트의 방〉<땀을 내리다〉 등이 있다. 수상 경력은 해외무용가상(20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예술상’(2006), 몸지 ‘무용예술상 작품상’(2007), 한국춤평가협회 작품상(2018)이 있다.



서울살다

쌀쌀한 바람도 온데간데없이 봄이 한창인 4월
파릇하게 솟은 나무의 색은
삭막하게 굳어 있던 도시와 우리의 눈을 깨워준다.

* 숲길과 물길로 이뤄진 여의도 세강생태공원의 산책로이다.
셋강은 한강 물줄기에서 길라져 여의도를 둘러 4.3km를 흐르다 다시 한강과 만난다.
물길을 따라 형성된 숲길은 우리에게 좋은 도심 휴식처가 된다.

글·사진 강민정 서울문화재단 사진작가



예술과 기술, 학교와 현장이 만나다

예술과 기술 융합주간 학계 토론회

일시 2021년 2월 23일(화) 오후 4시~5시 30분

모데레이터 김주섭 서강대학교 아트 & 테크놀로지 학과 교수

패널 이승무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 연구소 소장·
영상원 교수

오준현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디지털아트 전공 조교수

남주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부교수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동영상 유튜브 채널 <ARKO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 기술 융합주간] 학계 토론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주최한 ‘예술과 기술 융합주간’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예술과 기술 융합의 현재를 진단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상상해 보는 장으로 민간·공공·학계·산업계가 연대해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3일 열린 학계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하고 있는 예술과 기술 융합 관련 학과 교수를 초대해 생생한 사례를 듣고, 예술 현장과 교류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들에게 예술의 표현이나 경계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공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활발하게 오갔다.

발제 1 이승무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 연구소

저희 연구소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의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인프라를 기술, 산업계와 연결해 첨단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처음 소개할 프로젝트는

VR 이머시브 공연 <The First Crisis>입니다. 연극과 VR을 결합한 관객 참여형 공연은 전인미답의 영역이었는데, 2018년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유사한 형식의 공연을 소개한 바오밥 스튜디오의 크리에이터를 초빙해 글로벌 트렌드와 노하우를 흡수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이엔드 모션 트래킹 시스템을 활용한 대형 무대 방식은 여러 단점이 있어 다음에는 슈트 방식의 저가형 모션 트래킹으로 소규모 공간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 그 결과물이 <허수아비>입니다. 이 작품은 2020년 초 선댄스 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코로나 상황에서 런던의 레인댄스 영화제와 고민 끝에 만든 결과물이 소셜네트워크 버전 <허수아비 VRC>입니다. 이 작품은 ‘VRChat’이라는 소셜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에서 접속한 관객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연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우 1명과 플레이어 3명이 기본이었는데, 영화제 기간에 약 40명이 참여하는 멀티 유저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됐고, 영화제에서 최우수 실감 미디어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 제작된 <레인 프루츠 Rain Fruits>는 볼류메트릭 Volumetric¹ 기술을 활용한 VR다큐멘터리입니다. 미안마 출신 외국인노동자의 수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10여 개 영화제에 초청됐고,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360 시네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예술과 기술 융합주간 학계 토론회 현장

작업에서 습득한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이엔드 블루메트릭 기술을 활용한 VR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 중입니다. 관객 참여형 공연 <이중으로 걸어 다니는 자: 도플갱어Doppelgänger>는 예술위 아트엔테크 활성화 창작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삶과 죽음을 주제로 8명의 플레이어와 관객이 참여하는 공연입니다. 창작 영역뿐 아니라 가상현실 기초 연구를 기획해 고려대 의대·포항공대·유니스트 등과 함께 증강·가상현실을 활용한 국민 정신건강 향상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목표는 제작과 연구를 통해 습득한 노하우와 기술을 차세대 아티스트의 창작과 교육에 접목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작품은 모두 수업과 연계해 진행됐는데요, 작년에는 10여 개에 이르는 첨단 콘텐츠 관련 수업에 6개 원의 14개 전공, 14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그 규모와 범위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발제2 오준현 서울예술대학교 컬처허브

서울예술대학교(이하 서울예대)는 예술적 창의성과 기술적 전문성을 겸비한 예술가를 양성하고 실험적인 전문 창작인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컬처허브CultureHub 플랫폼을 통해 다양

한 국제 아티스트,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2006년 미국의 실험극장 라마마La MaMa와 협업해서 만든 산하기관으로 한국, 미국 LA·뉴욕, 이탈리아, 인도네시아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서울예대는 전공 간의 벽이 높지 않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타 전공 수업을 수강하고 있고, 교수진 간의 공동 수업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퍼포먼스 <팬옵티콘: 팬케이크에 관한 보고서>는 약 10개 전공의 학생 60여 명이 참여하고 교수 4명이 운영한 융합 창작 수업의 결과물을 발전시킨 것으로 2019년 파라다이스 아트랩 최종작에 선정돼 일반 관객에게 선보였습니다. 모션 캡처 슈트에 연동된 리얼타임 모션 트래킹으로 게임 엔진 유니티와 연동해 AI를 표현했고요, 인간과 AI의 풀기 어려운 딜레마와 인간 본연의 존엄에 대해 질문하면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2월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서울예대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UCSD의 아티스트가 협업해 원격현존감Telepresence²과 텔레마티크Telematique³ 기술을 활용해 공연한 <체인징 타이즈: 지구를 위한 진혼

1 사물이나 인물을 3D의 공간 값을 포함해 스캔하는 방식

2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실제 또는 가상의 장소를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3 프랑스어 Telecommunication(통신)과 Informatique(정보)의 합성어



이승무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엔테크놀로지
연구소 소장·영상원 교수

오준현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디지털아트 전공 조교수

곡)입니다. 약 60분간 양국의 아티스트가 한국과 미국에 있으면서 협주를 했고, 타국의 아티스트는 로컬 무대의 홀로그래프로 존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레이턴시(Latency)와 음악의 전송 속도에 따른 차이가 있어 즉흥적인 리듬을 추구했습니다. 서울예대가 킷처허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온라인 작업에 반신반의했지만 이제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공연에서는 서울예대와 킷처허브가 공동 개발한 웹 기반의 실시간 멀티 비디오 오디오 스트리밍 툴 ‘라이브 랩(Live Lab)’을 사용했습니다. 서울예대는 앞으로도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실험적 콘텐츠를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술과 기술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적 사고를 하는 창의적 예술가의 역할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주한

발제 3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은 2005년 설립돼 초기에 비해 예술 분야의 교육과 작품 활동이 줄어들긴 했지만, 예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예술 활동을 이어왔고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신승백·김용운 미디어아트팀으로 대표작은 아르스 일렉트

로니카(Ars Electronica) 센터 1층 로비에 전시돼 있는 <클라우드 페이스(Cloud face)>입니다. 얼굴 인식을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구름이 움직일 때 우연히 얼굴 형상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사진으로 기록해 격자형으로 모은 작품입니다. 신승백 작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김용운 작가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대학원에서 만나 엔지니어와 아티스트 협업 구조의 팀을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 박승순 작가와 이종필 개발자 팀은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⁴)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아트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작 <Neurospace 신경공간 V1>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미지를 인식해 단어를 추출하고 단어와 어울리는 사운드를 검색해 오디오 비주얼 형태의 인공 사운드스케이프를 생성하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최근에 수행한 ‘AI 피아노’ 연구입니다. AI 피아노는 주어진 악보를 해석해 곡의 빠르기, 음표의 세기, 페달 등 다양한 연주 표현 요소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학습된 인공지능 기반 피아노 연주 생성 시스템입니다. 피아노 연주 데이터 수집과 학습된 연주 모델의 평가를 위해 피아노 전공인 서울대 기악과 박종화 교수와 4년 전부터 공동으로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자동 연주 피아노를 이용한 음악 연주로 표현되다 보니 주변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과학 관련 행사에서 데모 공연을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어떻게 볼 것인가: WAYS OF SEEING>에서는 터키의 미디어아티스트 그룹 ‘노랩(NoHlab)’과 협업해 AI 피아노로 대체한 피아노 공연이 하루 종일 디스플레이되는 형태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카이스트 개교 50주년 기념 축하 공연에서는 AI 피아노와 박종화 교수가 듀엣으로 피아노곡으로 편곡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1악장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대학원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예술 전공 전임교수를 채용하고, 예술 전공 학생과 공학 전공 학생들이 팀을 이뤄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학교 예술 관련 학과 교수들과 공동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대전시립미술관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지역 기관으로 상생하며 과학과 예술이 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⁴ 영어 Sound(소리)와 Landscape(풍경)의 합성어

⁵ 전자 밸브로서, 전기가 통하면 플랜지가 올라가 밸브가 열리고 전기가 차단되면 플랜지 무게에 의해 자동적으로 밸브가 닫힌다.

⁶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진짜 같은 가상을 만드는 AI



발제 4 김주섭 서강대학교 아트 & 테크놀로지 학과

저희 학과의 세 가지 교육철학은 ‘다학제, 프로젝트 기반, 글로벌 교육’으로 하나의 학문 분야, 기존에 성립된 이론적 지식, 하나의 문화에 갇히지 않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세계 최초로 복층 구조의 3차원 워터 커튼 시스템을 개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공동 기획 전시한 <영원회귀>라는 정문열 교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핵심 요소는 높이 15m의 대형 공간에 설치된 복층 구조의 3차원 물방울 생성 장치로, 2,300여 개의 솔레노이드 밸브⁵가 있어 다양한 형태의 물방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작품의 메시지 전달에 활용한 주진호 교수의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작품입니다. 도시개발에 관한 환상과 허상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드론으로 촬영된 3,000여 장의 서울 사진을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⁶ 기법을 이용해 가상의 도시 풍경으로 만들어 관객에게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초현실주의 예술의 새로운 도구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실시간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공연에 접목한 라이브 애니메이션입니다. 그간 공연에서 그래픽이나 영상은 주로 배경 역할을 했고, 공연자는 싱크를 맞추기 위해 수많은 리허설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실시간 컴퓨터그래픽 기술로 가상의 거대한 나비가 공연자의 손끝에 얹는 정교한 연출도 하루 만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술과 기술이 만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된 사례입니다. ‘영원한 증언’은 대화형 인공지능 특수 영상 촬영 다큐멘터리 기법을 기반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증언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대화 시스템입니다. 할머니의 분신이 전 세계를 다니며 세대를 넘어 아픈 기억을 공유하도록 기술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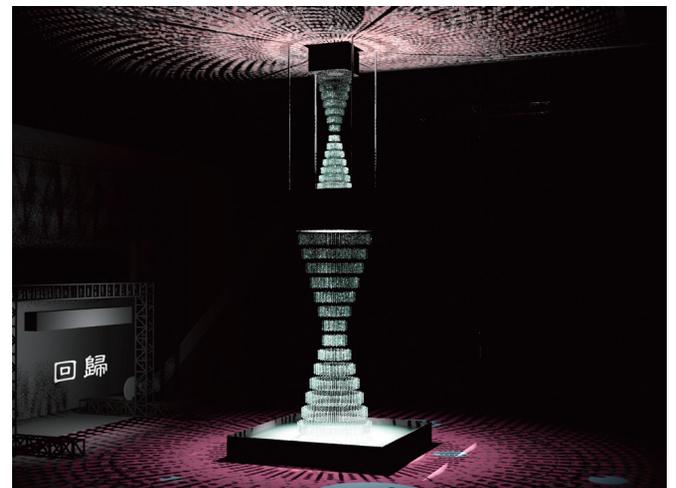
예술과 기술이 만날 때

김주섭 이어서 예술과 기술의 접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학계와 공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승문 저희는 공연 단체라기보다는 학교이기 때문에 인력 양성이 가

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하기 힘든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연구하고 창작하고 성과와 노하우, 시행착오를 이런 자리에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술과 과학을 이해하면서 창작하는 인력이 현장으로 나가면서 현장의 예술가, 산업계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는 컬래버레이션이나 파트너십에 대한 문호를 열어놓고 있고요. 저희 쪽에 리소스가 필요하거나 저희가 필요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분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오준현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1년 우리가 당면한 큰 화두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첨단기술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가 좀 더 빨리 다가왔는데요. 비대면이 본격화하고 초연결 사회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얘기하려면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해요. 성장과 기술 중심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지금, 공공의 복지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먼저 수반돼야 하고 당연히 고등교육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의도치 않게 온라인으로 강의해야 했고, 교육의 질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육의 목적과 장기적 안목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창작의 공유 이전에 저희가 직면한 화두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방법론적인 것이 뒷받침



<영원회귀>구상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주한 학계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 연구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연구의 재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발표한 논문이 믿을 만한 결과인지 입증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실험한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유된 소스 코드를 받아 실행해도 똑같이 재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인공지능 연구에는 알고리즘 개발자, 서비스로 개발하는 개발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사람 등 다양한 층이 있는데, 각 층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야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초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섭 두 번째로 예술가의 입장에서 기술적 부분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학계나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남주한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면 한 번도 빈 적 없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할지, 서로 기대치가 다를 수 있고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다 보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런 경우 중재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보통 연락이 와도 한번 답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회를 살리기 위한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준현 저희 학교만 해도 아날로그 성격이 강한 연극과 무용 기반의 교수님들은 실제 공연할 때 불편을 주거나, 기술에 가려 왜소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미디어 창작을 공부한 교수님들은 사고방식이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실제 프로토타입으로 빠르게 구현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기술을 도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김주섭 한예종 졸업생 중에는 순수한 예술가가 많은 텐데 기술을 흡수해서 커리어를 새롭게 해보겠다는 친구들이 있네요.

이승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아티스트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엔지니어에게 예술을 가르치는 게 조금 더 쉽다고 얘기해요. 지금 문화예술이나 첨단 영상 분야에서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이 부족합니다. 좌뇌와 우뇌가 합쳐진, 기술을 알면서 예술적 감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모든 예술가가 코딩을 하거나 기술을 구현할 수는 없으니, 만나는 접점을 어떻게 선순환하게 할지가 중요합니다.

융합 작품과 관객이 만날 때

김주섭 이제 유튜브로 시청 중인 관객의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관객에게 예술과 기술이 접목된 작품은 신기하게만 다뤄질 수 있고, 창작자나 관심 있는 사람만의 우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승무 지금은 하이엔드 관객을 위한 실험적인 것과 일반 관객이 만날 수 있는 작품이 혼재하고, 아카데미한 부분과 대중적인 부분의 구분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의 경우 그간 선수들을 위한 우리끼리의 창작이 진행됐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관객이 즐기고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좀 더 관객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조금 낮설어도 그 시도와 배경을 이해하려는 관객의 만남이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준현 이런 딜레마는 대부분의 창작자나 예술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을 때 조금 미숙하게 보이더라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출이 많이 된 세대와 노출이 덜 된 세대가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맞는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주섭 두 번째는 전공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할 때 어려운 점과 해결 과정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이승무 우리나라는 학문 간의 구분이 너무 뚜렷한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과생은 문과 지식을 몰라도 되고 문과생은 이과 지식을 몰라도 된다는 교육환경의 문제도 큰 것 같습니다. 작업하면서 이 정도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언어를 소통해 주는 중간자와 협업 과정에서 생기는 신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주섭 학부 때부터 융화되지 않으면 생각이 굳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학문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주한 교수님은 피아노를 전공한 박종화 교수님과 협업할 때 어땠나요.

남주한 박종화 교수님은 클래식 음악을 하는 분이고, 저희는 공학 중심이기 때문에 대화할 때 쓰는 용어가 달랐는데요. 기념행사 공연에서는 인공지능 모델과 사람이 듀오로 연주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연구에서는 사실 학습 데이터의 전체 결과 위주로



김주섭

서강대학교
아트 & 테크놀로지 학과 교수



남주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부교수

보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의논하면서 서로 더 이해하게 됐어요. 협업할 때 초기와 중간 단계에는 기술개발이 우선시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연·전시 등은 메시지와 감동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자와 개발자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해요. 자주 만나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작업 절차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주섭 다음으로 예술적 사유의 속도는 느리고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예술가로서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했습니다.

이승무 지금 가상현실·증강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든데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을 창작할 수 있는 물감이 새로 나온다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기술이 물감이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려고 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확고해야 합니다. 탐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관객을 만나면 ‘장난 같다’ ‘기술을 위한 것이지 예술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주섭 중요한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스토리이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 기술을 쓰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기술이 예술 창작에서 자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지 대한 논의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승무 기술이 자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

다. 사실 전 세계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허수아비VRC>를 할 때 큰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해 쉽게 했어요. 그 중 한 체험자는 미국의 중서부에 있었는데요. ‘평생 배우를 본 적이 없고 앞으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이 공연한 사람들이 내가 만난 마지막 배우’라고 해서 감동했어요. 브로드웨이에 가서 공연을 보는 경비에 비해 소셜 플랫폼에서 만나 공연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민주화된 형태라고 생각해요.

예술과 기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김주섭 마지막으로 예술과 기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계가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준현 여러 기관에서 예술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방식이나 절차는 또 다른 넘어야 할 산입니다. 행정적인 면을 완화해 줬으면 하고요. 예술가와 투자자를 매칭해서 연결해 주고 범무적인 조언을 해주어서 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까지가 공공기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1개 기관만의 노력이 아니라 교육계, 공공기관과 정치·사회·경제 모든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주한 저희 연구실은 행정 스태프가 영수증 처리, 정산, 기관과의 연락을 전담해 주기 때문에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의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단체로 지원해 주거나, 개인이 하더라도 빨리 할 수 있게 절차를 간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무 저는 ‘아트 &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씬으로 인해 문화예술 장르의 하위 분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앞으로 모든 문화예술단체는 미디어 컴퍼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메타버스, AI와 XR 등이 합쳐진 새로운 세상에서 문화예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아트 & 테크놀로지’를 하위 분야로 담아놓지 말고 모든 문화예술 창작에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로 확장해야 합니다.

김주섭 오늘 이 시간이 학계와 예술 현장과 공공기관이 조금 더 이해하고 소통할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서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협업하고 각각의 결과물이 또 다른 곳으로 유입될 때 미래 융복합 시대의 예술에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공을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

이건희 컬렉션과 미술품 물납제

미술계가 지난 한 달간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 도입을 호소하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3월 3일 미술계 협회와 단체, 전직 문화체육부 장관 8명이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국민 서명운동도 펼쳤다. 3월 11일에는 한국고미술협회·한국미술협회·한국화랑협회 공동 주최로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들이 물납제 도입을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 미술계가 이토록 간절히 호소하는 물납제, 정말 필요한 것일까?

미술품 물납제, 찬성과 반대 의견

물납제란 상속세 등의 세금을 미술품과 문화재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물납 대상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만 인정한다. 미술계 요구는 여기에 미술품·문화재도 포함해 달라라는 것이다. 공공의 관점에서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세금을 들이지 않고 작품을 수집해 공공이 누리는 문화유산으로 삼기에 좋은 제도여서 문화 강국으로 불리는 선진국들이 도입했다. 프랑스·영국·일본 등

이 각각 운영 방식은 다르나 물납제를 시행한다. 해외 유서 깊은 미술관·박물관들의 장대한 컬렉션은 물납제 덕이 크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해 물납제로 추정이 960억 원어치의 미술품을 확보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국가는 '현금 납부'를 세수 확보 원칙으로 한다. 물납을 받으면 현금화에 재정 부담이 생긴다. 정확한 시가 감정을 통해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냐는 점도 걸림돌이다. 납부자가 현금 납부가 가능하면서 자기 유불리에 따라 값어치가 낮은 미술품만 내놓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미술계는 시가 감정 능력이 성숙해 가고 있으며, 악용 가능성

1 재산 권리를 표시한 증서로서 화폐·상품증권·어음·수표·채권 등이 해당된다.



은 법안을 세밀하게 설계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문화체육부 역시 공공문화향유권 차원에서 물납제 도입을 위한 기초 안을 마련 중이다. 물납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가치 있는 논의의 필요

고교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품을 일컫는 ‘이견희 컬렉션’ 이슈는 이런 가운데 돌출했다. 감정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민간 감정단체 세 곳이 이 전 회장의 소장품 감정을 시작했다. 약 두 달간 소장처를 돌며 실물을 확인한 뒤 감정 보고서를 썼다. 명작 1만 2,000여 점의 최고의 시설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한 작품의 추정가가 30억~50억 원이어서 컬렉션 전체 추정가가 1조~3조 원으로 이야기된다. 주요 서양화가의 경우 핵심 작품만 20~30점씩 있어 그 인물의 일대기를 보는 듯하다고 한다. 좋은 작품

을 솔하게 봤을 국내 감정가들이 “내 평생 이런 작품을 보고 죽게 되다니”라며 감격하고 국민이 꼭 함께 봤으면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이견희 컬렉션을 접한 미술계가 발을 동동 구르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어디로 흩어져서도, 이대로 계속 수장고에 잠자서도 안 된다고 말이다. 사유재산을 두고 기부를 강요할 수도 없으니, 어디까지나 삼성가의 외부자인 미술계는 그저 물납제가 아직도 도입되지 못한 현실을 개탄한다. 물납제를 조속히 도입해 이번 사례에 적용하면 소장가도, 공공도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오비이락에 의구심 갖는 여론이 있음을 미술계도 잘 알고 있다. 이견희 컬렉션과 물납제 논의가 마침 겹치자, 삼성가의 세금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이도, 또 정반대로 삼성가로부터 나라가 미술품을 뺏으려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다. 하지만 의구심을 거두고 논의가 진행돼 온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 시한인 4월 30일까지 물납제 도입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견희 컬렉션이 적용 1호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인다. 이에 미술계는 우선 급한 이견희 컬렉션에 대한 다른 대안도 내놓기 시작했다. 이번 사례에만 적용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견희 컬렉션이 고스란히 담긴 미술관을 삼성이 건립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부지 제공 등을 협력해 준다거나, 국립미술관을 건립해 정부가 이견희 컬렉션을 기부받는 방안 등이다.

그렇다면 물납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견희 컬렉션 이슈 덕분에 100만 구독자 유튜브 영상이나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큼 물납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이견희 컬렉션 이슈가 지나가면 관심은 또 꺼질 수 있다. 이견희 컬렉션 이슈가 생기기 전에도 물납제 논의는 필요했고, 이견희 컬렉션 이슈가 끝나도 물납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 방탄소년단 RM과 같은 한류를 선도하는 대중문화 예술가들은 미술이 영감의 원천임을 말하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 컬렉터들의 유입과 함께 시장도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공공 미술관·박물관 인프라는 초라한 게 현실이다. 한국미술협회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나라처럼 3만 달러 초반인 이탈리아의 주요 미술관은 로마 24곳을 포함해 전국 141곳이다. 반면 우리는 10곳이다. 프랑스의 물납제 1호 미술관인 피카소 미술관처럼 우리나라도 후대에 두고두고 가치가 빛을 발할 미술관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1 3월 11일 미술단체가 연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위한 세미나 현장
2 고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마크 로스코의 색면 추상 작품을 다수 소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잠옷 바람으로 즐기는 음성 문화

오디오 콘텐츠 열풍

“클하 해봤어?” 지난 2월부터 수없이 들은 얘기다.

“아니, 가입은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나의 준비된 대답이었다.

그랬다. 나는 감히 클럽하우스라는 새로운 세상에 몸을 던질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클럽하우스는 쌍방향 음성 기반의 SNS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지 불과 1년 만에 대박이 났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하루 이용자수는 약 270명에 불과했다. 아홉 달 뒤인 지난 2월 주간 이용자수는 약 200만 명이다. 회원 수는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아이폰만 되고, 기존 회원의 초대장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폐쇄적 구조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난리인 걸까?

3월 13일 그 이유를 어렵פות이 알 수 있었다. 큰맘 먹고 클럽하우스에 접속해 ‘영알못도 피튀기는 영화 퀴즈방’에 들어갔다. 아는 사이인 큰 미미(미미시스터즈)가 개설한 방이라 그나마 맘이 편했다. 들어가니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 순서에 따라 출제자가 키워드를 말하면 다른 이들이 영화 제목을 맞히는 식이었다. 어려웠다. 내가 영화 담당 기자인데도, 단 한 문제도 못 맞혔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잘도 맞혔다. 내가 문제 낼 차례가 왔다. “기차, 역주행.” “박하사탕!” 3초 만에 정답자가 나왔다. 그날 가장 쉬운 문제였다.

이곳에선 모두가 평등했다. 성별·나이·직업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같은 유명인도 여기서는 평범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한다. 21세기 IT 기술을 적용한 아고라 광장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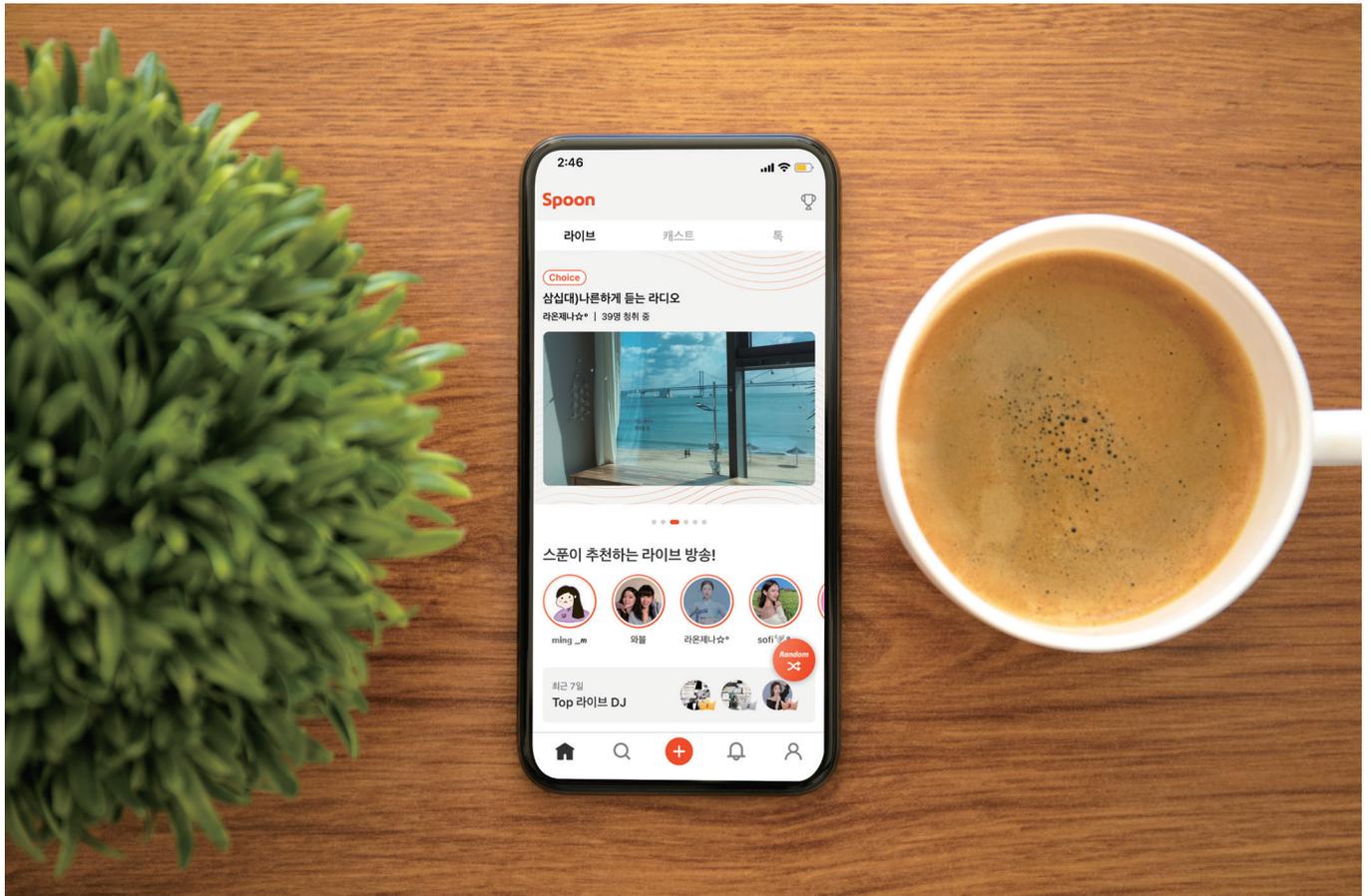
클럽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 영상을 뺀 음성만으로 이뤄진다는 거다. 말들이 실시간으로 흘러버리고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도 단

점보다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수년 전 유튜브와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보여준다는 것, 기록에 남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클럽하우스에선 안 그랬다. 집에서 잠옷 바람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여도 휘발되면 그만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더 자유분방하고 진솔한 소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유튜브, OTT 등 영상 콘텐츠가 대세가 된 지 오래인 지금, 거꾸로 음성 기반의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늘고 있다. 요즘 뜨거운 클럽하우스만이 아니다. 전통적인 오디오 콘텐츠인 팟캐스트를 봐도 그렇다. 2011년 김어준 등의 <나는 꼼수다>가 등장한 이후 정치 시사 팟캐스트 붐이 일었다. 하지만 몇 년 뒤 유튜브가 이 영역을 삼켰다. 팟캐스트는 사라지는 듯했다. 아니었다. 수치가 증명한다.

코로나19 사태는 미디어 이용 습관마저 바꿨다. OTT 이용량이 급증한 게 대표적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팟캐스트 이용량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을 기준으로 7주 뒤 팟빵 주 단위 청취 시간은 36%나 증가했다. 팟캐스트 시장은 이전에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9년 팟빵 이용량은 전년보다 3배 넘게 성장했다. 팟빵 관계자는 “국내에 AI 스피커가 800만 대나 보급된 것도 오디오 콘텐츠 시장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국내에 상륙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도 팟캐스트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국내에서도 조만간 팟캐스트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도 오디오 콘텐츠 시장 성장세에 주목하며 뛰어 들었다. 2017년부터 팟캐스트와 비슷한 오디오클럽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2019년부터는 라이브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나우도 시작했다. 오디오북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오디오 드라마, 영화를 귀로 듣는 오디오 시네마까지 등장했다. 오디오 콘텐츠가 새삼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멀티태스킹이 쉽다는 특성에 있다. 온 신경을 집중하고 봐야 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달리 오디오 콘텐츠는 귀로 들으며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팟빵 관계자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면 하루 24시간을 26~27시간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바로 그런 마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오디오 콘텐츠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오디오 콘텐츠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에 나서는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라디오계의 유튜브’라 불리는 오디오 방송 플랫폼 스푼을 운영하는 스푼라디오가 대표적이다. 스푼에선 목소리만으로 손쉽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10만 개의 새로운 콘텐츠가 생성된다. 스푼은 미국·일본·중국 등에도 진출했다. 스포트라이트101은 클럽하우스와 비슷한 커뮤니티형 라디오 블라블라 서비스를 지난해 시작했다. 카카오페이지 등 투자를 유치하며 한국형 클럽하우스를 꿈꾼다.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스에 따르면, 세계 라이브 오디오 스트리밍 시장은 2018년 4억 720만 달러(약 4,488억 원) 규모에서 2027년 11억 6,640만 달러(약 1조 2,856억 원)로 커질 전망이다. 누구나 쉽게 뛰어 들 순 있어도 플랫폼이든 콘텐츠든 돋보이기 쉽다. 결국은 오디오 콘텐츠의 특성과 장점을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글 서정민 《한겨레》 문화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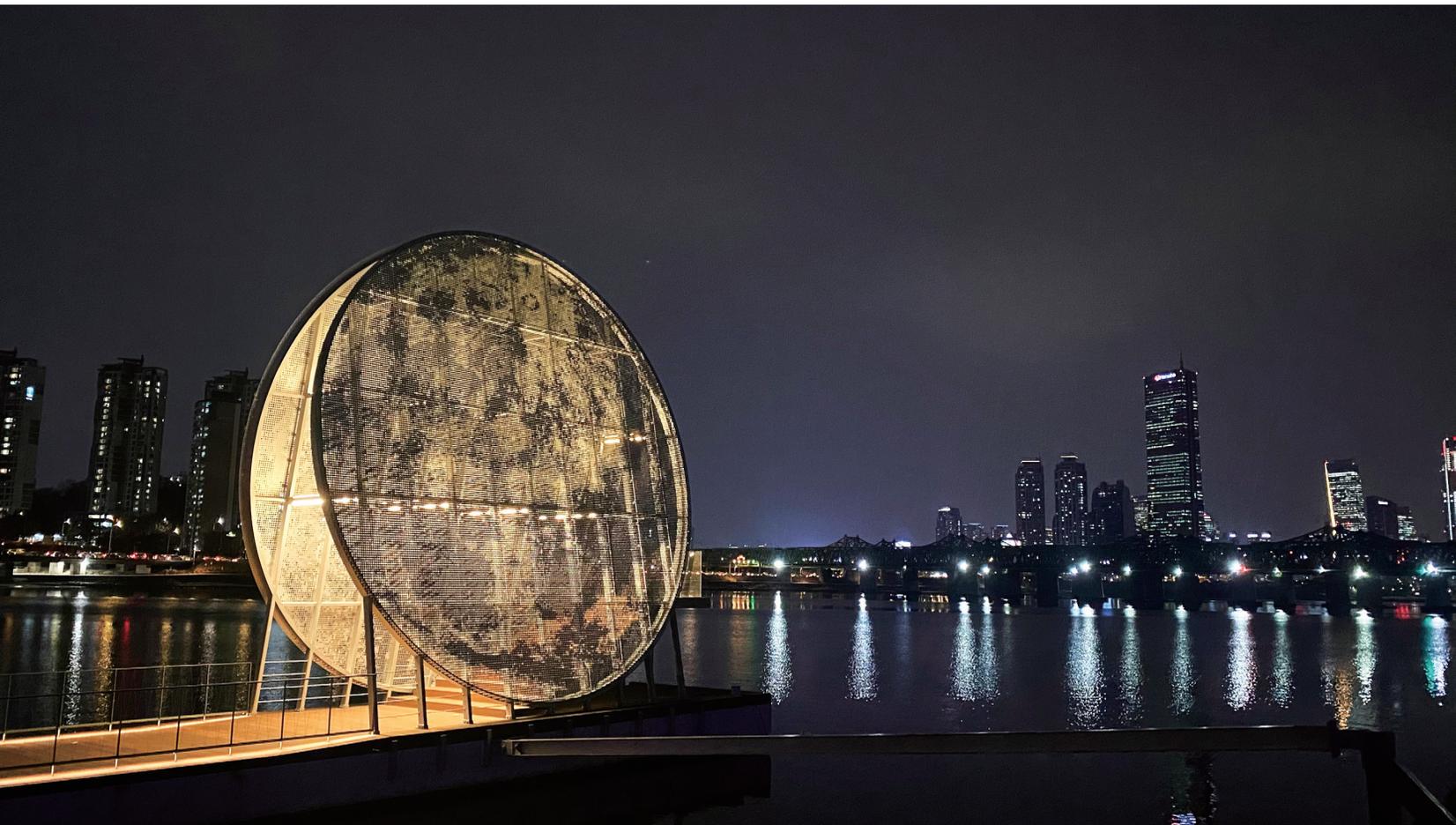
노들섬에 휘영청 달이 뜨다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달빛노들'

“노들강변 봄버들 휘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 동여매어나 볼까”
일제강점기에 발표돼 널리 알려진 경기민요 양식의 대중노래 <노들강변>의 첫 소절이다.

100년 넘게 서울시민의 휴양지로 사랑받았지만

강변북로 건설로 모래사장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던 노들섬에 다시 봄이 왔다.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3월의 늦은 오후,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한강대교를 오가는 차량들 너머로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발견할 수 있는 호젓한 예술섬, 노들섬을 찾았다.



용산구 양녕로 노들섬 선착장에 공공미술 '달빛노들'이 설치됐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노들섬은 음악과 책, 자연과 쉽이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별이 따뜻해지고 봄 바람도 살랑 불어와서일까. 노들섬 곳곳에 들쭉날쭉 모인 사람들이 모 처럼의 산책과 작은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노들섬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 에도, 자욱한 미세먼지로 63빌딩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언제나 휘영 청 뜬 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올해 초 서울시는 방치됐던 노들섬 선착장에 거대한 인공 달을 띄워 '달빛노들'로 탈바꿈시켰다. 달 모양 원형 구조물 안에는 일렁이는 한 강과 도심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2층 높이의 전망 데크Deck과 소규모 수상 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무대도 조성됐다.

LED 조명이 한강에 반사돼 만들어낸 달빛노들의 윤슬은 어딘가 익숙하지만 생경한 도심의 감흥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달빛노들과 도심의 풍광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노들섬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들어 제각각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봄밤의 정취답다.

사실 노들섬 하단부는 유속이 빠르고 바람이 많이 부는 데다가 잦은 침수로 작품 설치가 어려운 지형이다. 이러한 이유로 집중호우에도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는 달빛노들이 완성됐다. 지름 12m의 원형 스틸 구조를 가진 달빛노들은 4만 5,318개의 불규칙한 구멍을 통해 새어나오는 빛을 이용해 은유적으로 달을 형상화한다. 달빛노들은 마냥 보름달의 얼굴만 하고 있지 않다.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빛은 이 거대한 인공달을 삭에서 초승달·상현달·보름달·하현달·그믐달로 다양한 달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이 달빛노들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유람선을 타고 뱃길로 들어가거나. 유람선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 저녁 7시 30분에 여의도에서 출발한다. 반포대교를 돌아 노들섬에 도착해 약 15분간 정박한 후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는 코스다.

달빛노들은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이 작년 6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한 국제지명공모에서 최종 당선된 한국의 건축가 네임리스 건축NAMELESS Architecture(나은중·유소래)의 작품이다. 이번 공모는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서울시립미술관 등 다분야의



달 모양 원형 구조물 내부

문화예술 전문가가 참여해 작가추천위원회·작가선정위원회를 거쳐 슈퍼플렉스(덴마크)·레드펜슬스튜디오(미국)·랜덤인터내셔널(영국)·네임리스 건축(한국) 등 국내외 아티스트 4팀이 참여한 바 있다. 버려진 공간을 발굴해 예술 명소로 바꾸는 <서울은 미술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젝트는 북한의 남침을 대비해 홍제천 위에 세운 유진상가의 하부 지하통로를 예술 작품으로 이은 <홍제유연>(2019), 지하 4층 규모의 지하철 역사 전체를 하나의 미술관으로 조성한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2018)의 연장선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에 설치된 달빛노들이 노들섬의 자연환경적 매력을 부각해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길 기대한다”며 “지역의 버려진 자원을 예술로 재탄생시키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품을 설계한 네임리스 건축의 나은중 건축가는 노들섬에 달을 띄우게 된 과정에 대해 “빠곡하게 들어찬 도시에 또 하나를 마저 더 채워 넣기보다는 비어 있는 작은 점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다”며, “기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강강술래와 같은 유희의 대상이기도 한 보름달처럼 '달빛노들'이 건조한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흥과 볼거리를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글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사진 제공 서울시



역사 전시관으로 복원된 붉은벽돌집

앨버트 테일러 가족 '딜쿠샤'

앨버트 W. 테일러는 1919년 3월 1일의 국내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미국인이다. 그가 살던 종로구 행촌동의 붉은벽돌집 딜쿠샤는 오랫동안 주인 없이 방치됐다. 서울시는 그의 행적을 기리고자 딜쿠샤를 복원하고 역사 전시관으로 조성해 지난 3·1절 시민에게 개방했다. 앨버트가 1942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된 후 약 80년 만이다.

딜쿠샤(Dilkusha) 전시관은 테일러 부부의 당시 생활상을 재현하고, 앨버트의 언론 활동과 건물 복원 과정 등을 소개한다. 내부는 앨버트의 손녀 제니퍼가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한 유물 3,102점(1,026건)을 기반으로 채워졌다. 제니퍼는 “딜쿠샤 개관으로 한국의 독립투쟁에 동참한 서양인 독립유공자가 재조명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딜쿠샤 개관을 축하했다.

딜쿠샤는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테일러 가족이 살던 당시의 거실 내부를 재현하고, 테일러 부부의 결혼과 한국 생활, 강제 추방 이후의 이야기를 전한다. 또한 앨버트의 언론 활동을 영상으로 상영하며,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힌 딜쿠샤가 다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과정도 다룬다. 6개 전시실로 구성해 '1920년대 딜쿠샤 거실 모습' '딜쿠샤의 역사' '테일러 가족의 한국에서의 생활' '딜쿠샤의 복원' '다시 세상에 알려진 딜쿠샤' 등의 이야기를 사료와 함께 전시한다. 2021년 3·1운동 102주년에 개방한 딜쿠샤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미국인의 생애 이야기로 가득했다.



1 1920년대 2층 거실을 재현한 현재 모습
2 딜쿠사 측면 전경

1919년 3월 1일의 외침을 세계에 알린 미국인

1919년 2월 28일,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은 3·1 독립선언서 복사본을 인쇄하고 숨겼다. 불안하고 뒤숭숭한 분위기의 현장에서 앨버트의 아내 메리 L. 테일러는 아들 브루스를 낳고 있었다. 3·1운동 전날 브루스의 울음소리가 병원을 채웠다. 이때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한 기록이 메리가 쓴 회고록《호박 목걸이》에 적혀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연합통신Associated Press 임시 특파원으로 활동하던 앨버트는 긴박한 현장 상황을 알리고자 행동했다. 앨버트는 세브란스병원 침대에 숨겨져 있던 3·1 독립선언서를 발견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3·1 독립선언서와 기사를 동생 윌리엄에게 건네고, 윌리엄은 이를 구두 뒤축에 숨겨 일본 도쿄로 넘어가 미국에 보냈다. 일본을 거쳐야만 미국에 정보가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사는 1919년 3월 13일《뉴욕타임스》에 ‘한국인 독립을 선언하다Koreans Declare for Independence’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그렇게 국민의 절박한 아우성이 세계로 울려 퍼졌다. 그에 비해 앨버트의 행적과 그가 살던 집 딜쿠사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붉은벽돌로 지은 서양식 집은 오랫동안 한곳에 있었음에도 주인 없이 방치돼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불리기도 했으니 말이다.

앨버트는 1875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광산 기술자였는데 조선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아들을 불렀다. 앨버트는 1897년 조선에 왔고, 본업은 사업가에 가까웠다. 금광업 외 테일러상회를 열어 조선의 특산품과 외국 물건을 사고파는 무역으로 돈을 벌었

다. 언론 활동은 고종 국장을 취재하기 위한 임시 특파원으로 연합통신이 임명하며 시작했다. 이후 ‘3·1운동’ ‘제마리 학살사건’ 등 참담한 상황을 세계에 전했다. 그는 언론인으로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알렸다. 앨버트는 광산 일에 필요한 굴삭기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일본에서 메리를 만나 평생을 함께했다. 둘은 인도 러크나우Lucknow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본 궁전 ‘딜쿠사’에 반해 언젠가 지을 집의 이름을 정했다고 한다. 딜쿠사는 산스크리트어(인도의 고대어, ‘순수한 언어’ ‘완성된 언어’를 의미)로 ‘기쁜 마음의 궁전’을 뜻한다. 부부는 지금의 사직터널 부근에 있는 한 은행나무를 좋아했다. 임진왜란 때 권을 장군이 심었다고 전해지는 은행나무로 행촌동榭村洞이라는 지명을 낳은 나무이기도 하다. 부부는 이곳에 살기로 결심했다. 1923년 딜쿠사 공사를 시작해 1년 후 완공했고,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된 1942년까지 살았다. 위 짧은 이야기로 담지 못한 상세한 역사와 사료는 딜쿠사에서 직접 볼 수 있다. 메리의 이야기도 정리돼 있다. 앨버트가 메리에게 선물한 ‘호박 목걸이’와 ‘인연’, 그림에도 관심 많은 ‘메리가 그린 한국 풍경과 사람들’이 전시됐다. 메리가 아끼던 호박 목걸이와 함께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패종시계·삼층장·주칠 원반 등도 전시관을 채우고 있다. 안미경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딜쿠사의 역사적 가치를 돌로 나눠 설명했다. “앨버트는 우리나라 사건을 해외로 전달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딜쿠사를 방문하면 그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알린 사실을 알 수 있죠. 정동 일대를 비롯해 주변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며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시관입니다. 또한 딜쿠사는 한국 근대건축사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공동벽 쌓기’로 지은 건물이에요. 벽돌을 세워 쌓아 벽돌의 넓은 면과 마구리가 번갈아 나타나는 방식으로, 단열·보온·방습·방음에 유용합니다.” 더불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딜쿠사의 복원은 단순히 한 가옥의 복원을 넘어 근대건축물의 복원이자 항일 민족정신의 복원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딜쿠사가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값지게 활용될 것을 말했다.

앨버트 테일러 가옥 딜쿠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2길 17(행촌동)
운영 화~일 오전 9시~오후 6시(1월 1일, 월 휴관)
방식 사전 예약 관람(일 4회, 매회 15~20명 이내)
예약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yeyak.seoul.go.kr | 문의 070-4126-8853



“낮설지만 흥미롭다” 영화·문학, 무대에 오르다

뮤지컬 <포미니츠>와 연극 <정의의 사람들>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나는 4월, 광화문 일대에는 시대와 언어를 뛰어넘은 두 편의 창작극이 처음 꽃핀다. 정동극장 기획공연 뮤지컬 <포미니츠>와 서울시극단 <정의의 사람들>이 잇달아 관객과 만난다. 두 작품은 각각 영화와 희곡이 원작으로, 모두 실화를 재구성해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펼쳐낸다. 각색, 연출, 배우, 무대 소품·장치에 따라 무한히 변신할 수 있는 것이 공연예술이다. 입체적으로 완성된 공연을 원작과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동시에 무대언어라는 장르적 차별성을 기대하는 관객에게 어떻게 다가갈지가 관건이다.

열정과 자유가 허락된 ‘마지막 4분’을 위해

<포미니츠> | 4. 7~5. 23 | 정동극장

뮤지컬 <포미니츠>는 2007년 국내 개봉한 독일 크리스 크라우스 감독의 동명 영화가 원작이다. 2004년 세상을 떠난 실존 인물 거트루드 크뤼거의 삶을 바탕으로 제작 기간만 8년이 걸렸으며, 2007 독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크뤼거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피아노 레슨 봉사 활동을 하며 평생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 작가였던 크라우스 감독은 “크뤼거의 인생이나를 영화감독으로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루카우 교도소를 배경으로, 피아노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다. 60년 동안 여성 재소자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온 ‘크뤼거’가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는 18세



뮤지컬 <포미니츠> 제니(김수하)와 크뤼거(김선경)



소녀 '제니'와 만나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교감하고 치유하는 내용이다. 너무 다른 두 사람의 갈등과 아픔, 우정을 피아노 선율에 담아내며 깊은 여운을 남긴다.

예술감독으로 참여하는 배우 양준모는 <포미니츠>를 뮤지컬로 제작하기 위해 영화감독을 통해 직접 저작권을 따냈다. 그는 “제니가 보여주는 연주 퍼포먼스를 무대에 올렸을 때 많은 관객에게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

공연 전반에 모차르트·베토벤·슈베르트·슈만 등의 클래식 명곡과 합창과 재즈가 혼합된 크로스오버 클래식이 등장한다. 두드리고, 튕기고, 차고... 광기에 가까운 격정적인 제니의 마지막 4분 연주와 이를 바라보는 크뤼거. 어디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두 여성의 화양연화花樣年華(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말)가 아니었을까.

김선경·김선영이 '크뤼거', 김환희·김수하가 '제니'를 연기한다. 뮤지컬 <편후>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연극 <오만과 편견> <령스>의 박소영 연출과 뮤지컬 <호프> <검은 사제들>의 강남 작가, 뮤지컬 <워치> <공동경비구역 JSA>의 맹성연 작곡가가 호흡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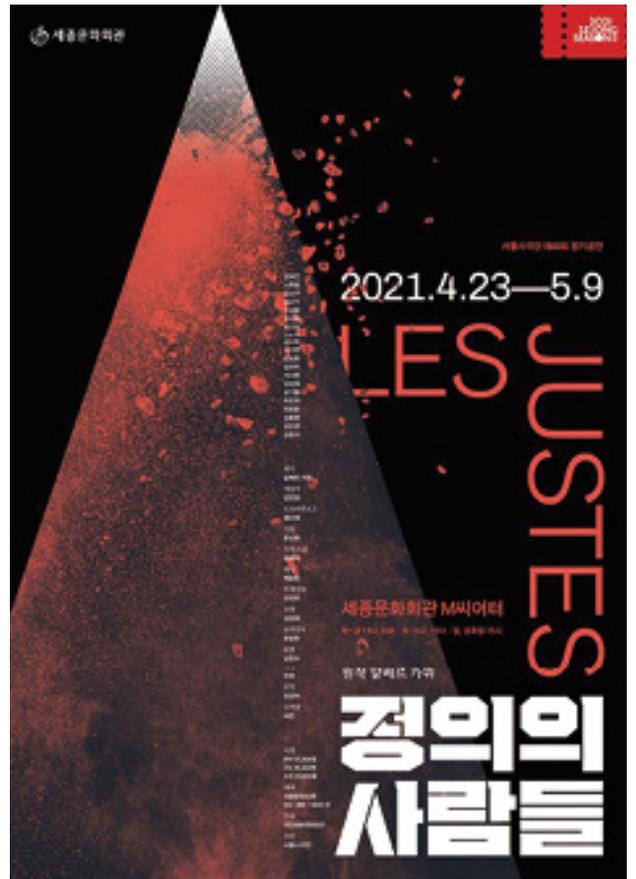
현대적 시각으로 고전의 이야기를 꺼내다

<정의의 사람들> | 4. 23~5. 9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진정한 정의란 무엇일까. 누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할 수 있는가? 내가 말하는 정의가 누군가에게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 정의는 하나가 아니라 시대와 환경·관점·대상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수없이 변모한다. 일찍이 철학자 파스칼은 “피레네산맥 이쪽의 정의가 저쪽에선 불의가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서울시극단이 올해 시즌 첫 공연으로 선보이는 <정의의 사람들>은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희곡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창작했다. 러시아 혁명의 도화선이 된 1905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숙부인 세르게이 대공을 암살한 사건을 모티브로, 정의와 인간애 사이에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젊은이들을 다룬다. 카뮈는 존중과 찬미의 심정을 담아 주인공에게 실제 인물의 이름 '칼리아에프'를 그대로 붙이기도 했다.

공연은 스토리 중심의 흐름이 아닌 인물들이 말하고자 하는 각자의 정의 자체에 집중한다. 원작의 러시아혁명부터 안중근 의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의 광화문광장까지 과거와 현재 사이를 긴박하게 오가며 끊임없이 정의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연극 <정의의 사람들> 포스터

이번 초연은 2020년 6월 서울시극단장으로 부임한 문삼화 단장이 연출을 맡아 묵직한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연극 <해무>의 김민정 작가와 배선에 드라마투르그(연출가와 공연 작품의 해석 및 각색을 하는 사람)가 합류해 극의 완성도를 더하고, 극단의 전 단원이 배우로 출연한다. 문 단장은 “원작의 시공간을 완전히 비틀었다”며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들의 삶이 가슴 아플 정도로 아름다웠는데, 카뮈가 말한 정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극적 감흥을 이끌어낼지, <정의의 사람들>이 보여줄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글 신성아 <뉴데일리> 기자 | 사진 제공 정동극장, 세종문화회관



4월, 도서관을 만나는 달

책《도서관 생태마을에 삽니다》와《전통시장 '읽어주는 책' 방송》

지금의 도서관은 칸막이 독서실이 있던 예전의 폐쇄형 공간과는 다르다. 낮은 서가와 다양한 공간 배치로 휴식을 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마침 4월에는 도서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도서관주간'도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출입 기자로 도서관을 취재하면서 더욱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에 취재를 하며 만난 열정적인 현장 사서들이 쓴 도서관에 관한 책 두 권을 소개한다. 도서관과 사서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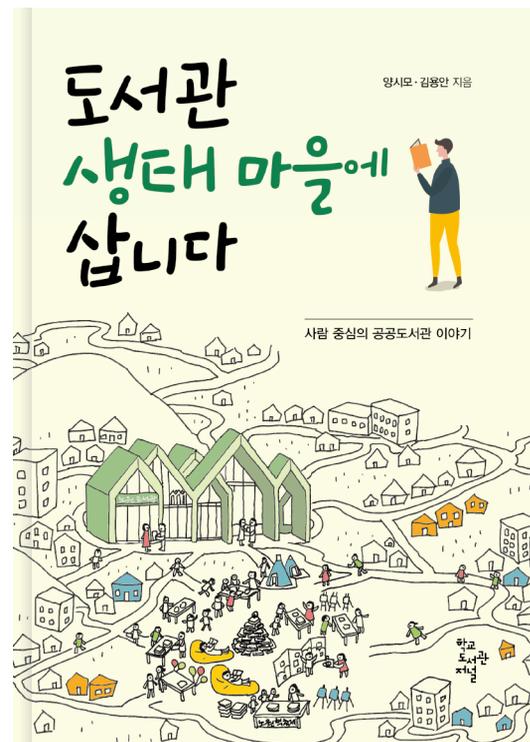
사람을 만나러 가는 도서관

《도서관 생태마을에 삽니다》 | 양시모·김봉안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도서관 생태마을에 삽니다》는 당시 노원구립도서관 총괄 관장이 집필에 참여한 책이다. 도서관을 주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면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노원구립도서관은 찾아오는 이용자만 기다리지 않는다. 오히려 도서관을 방문할 만큼 물리·심리적 여유가 없는 이들을 찾아가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사업의 대표 예가 '책을 읽어주는 사람 리딩인 Reading s'이다. 리딩인 사업은 도서관이 책을 읽어주는 재능기부를 하는 활동가를 양성해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사업이다. 학교·양로원 등 지역 내 책 읽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방문한다. 예컨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찾아가면 리딩인들은 1년 동안 학생들을 만난다. 어린이들은 이 시간쯤이면 찾아올 리딩인들을





기다리고 반긴다. 빅북Big Book을 보여주며 책을 읽어줄 때면 어린이들의 눈망울은 그야말로 초롱초롱하게 리딩인들을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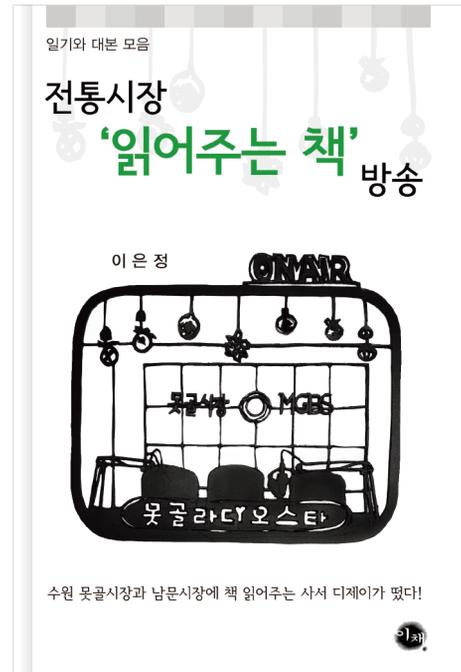
‘전국 최초 상설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휴먼라이브러리도 흥미로운 사업이다. 주민이라면 누구나 휴먼북, 즉 ‘사람책’을 대출해 그들의 경험과 재능을 공유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보고 해당 분야의 사람책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만나고 싶은 사람을 신청하면 된다. 주민들은 한 분야를 앞서간 사람을 만나 그들의 역량을 공유하고 잘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사람책들은 흔쾌히 주민들의 대출에 응한다. “나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 아주 간절해 보였어요.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저렇게 눈빛이 간절한 아이들은 흔하지 않아요.” 이런 주민들의 모습에 사람책들은 진심이 담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책에는 이외에도 책과 독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책 읽는 어머니 학교’ 등 노원구립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이 담겼다. 지역 도서관이 오늘날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일구기 위해 노력하는지 보여준다.

전통시장의 들리는 도서관

《전통시장 ‘읽어주는 책’ 방송》 | 이은정 지음 | 이채

“우리나라에 씨앗을 대출해 주는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날이 뜨거울 때 베란다에 뭘 키우면 잘 자라더라고요.” 수원 못골시장과 남문시장 등 전통시장에는 한 달에 한 번 저자의 낭랑한 목소리로 라디오방송 ‘책, 그것이 알고 싶다’가 울려 퍼졌다. 저자는 전통시장 내 방송국에서 대본을 쓰고 연출에 진행, 선곡까지 1인 다역을 맡아 라디오방송을 4년 동안 운영했다. 사서인 저자는 어떻게 전통시장에서 방송을 하게 된 걸까.

저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 도서관인 농식품전문자료실의 사서로 7년 동안 근무했다. 그런데 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여야 할, 농수산 식품을 사고파는 상인들은 막상 도서관에 들를 짬을 내지 못했다.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도서관이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을 만나지 못하면 활용할 수 없다. 이에 저자는 직접 상인들을 만나러 전통시장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방송은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읽어주고 관련 내용을 들려주며 때론 농수산식품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혼자 방송기기를 다루는 것도 어려워하던 저자는 어느새 ‘보이는 라디오’까지 송출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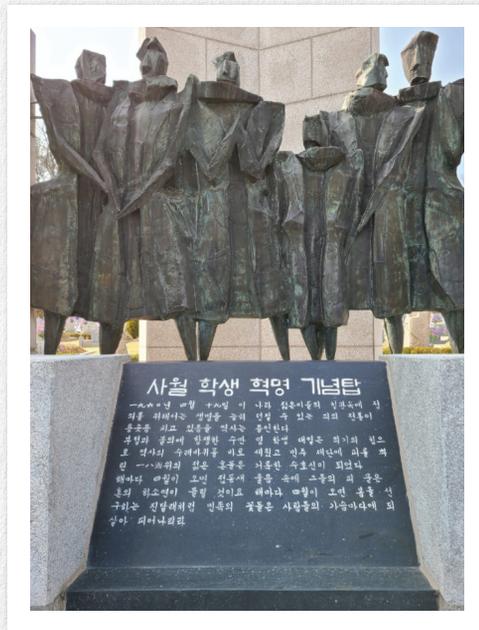


방송을 하는 4년 동안, 저자는 ‘시장 사람’이 됐다. 사서가 언제까지 방송을 할지 반신반의했던 상인들은 꾸준한 그의 모습을 보고 든든한 지지자가 됐고, 책에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다. 차츰 방송에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생겼다. “나혜석에 대한 방송이 좋았다”는 한 청취자의 반응에 저자는 힘을 내 다음 방송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일기와 대본이 묶인 책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서의 모습과 함께 여느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인의 모습도 담겼다. 저자는 방송을 하던 시기, 공사장에서 1년여 동안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로 활동했다. 성명서를 쓰는 등 비정규직 운동을 하는 동안 겪었던 마음고생과 함께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도 엿볼 수 있다.

글 송현경 <내일신문> 기자 | 사진 제공 학교도서관저널, 이채

그들이 역사에 지은 평화와 평등과 자유의 농사



사월 학생 혁명 기념탑

청명·한식에 곡우가 들어 있는 달, 4월.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하고 비가 내려 비로소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때. 찬밥을 먹기에 나쁘지 않은 한식을 보낸 뒤 만나게 되는 4월... 그냥 4월이 아니다. 1960년, 우리가 그 저 '사일구'라고 하는 날. 학생의거에서 학생혁명까지 의미를 정의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그날이 거기에 있다.

1960년 4월에 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설악산 아랫동네의 자그마한 여자중학교 학생.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때, 고등학교 학생회장 언니가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남문리 시장까지 행진을 하게 했다. 언니가 구호를 선창했고 우리는 그 의미도 모른 채 따라서 소리 치고 그저 킁킁대며 빼돌빼돌 줄을 서서 시장으로 갔다. 장거리의 여러 골목. 공연히 할머니의 채소가 든 함지를 발로 툭툭 차기도 했다. 하여간 김일성 괴뢰도당을 물리치자고, 북진통일을 외치게 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어찌고저찌고 했나?

이후 해가 바뀌고 이른 여름이 올 때, 다시 무언지 몰라도 군인들이 어찌고저찌고 하는 일이 생겼다. 텔레비전이란 것이 있다는 소문도 들어보지 못했고 안방 벽에 붙여놓은 트랜지스터라디오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가 좋아하는 연속극을 듣는 용.《동아일보》를 보긴 했어도 한자가 많았으니 그것도 어른용이었다. 하여튼 무지無知도 죄라지만 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도 모른 채 살다가 1980년대 초반부터 수유리 4·19 민주묘지와 가까운 곳에 살게 됐다. 수유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돌아 묘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2차선 도로엔 이상한 기운이 늘 서려 있었다. 그 위의 산골짜기와 산기슭에 손가락으로 한참을 꼽아야 되는 애국자들의 묘지가 있어서일까? 아니다, 골목 오른쪽 산기슭에 자리한 4·19 희생자들의 묘지 때문이다. 그곳에는 비밀상적, 비상식적 기운이 감돈다고 느꼈다. 묘역에 가면 초라하고 소박하고 서럽고 불쌍한 느낌이 가지지 않게 하는 봉분 없는 묘비석. 이름이 써어 있는 묘지의 주인들은 경무대·중앙청·광화문·종로·내무부·시청·서대문 이기봉 집 앞 등지에서 ‘총상’이나 ‘곤봉부상’으로 그날 사망했다. 부산·마산·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 초등학교·중학생·고등학교·대학생·어른들.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맘때, 경상도 억양이 강한, 체육관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고 있었다. 수유리 근처, 화계사와 가까운 곳, 한신대학교와 천주교 성당의 지하 공간에선 알음알음으로 사람들을 모아 ‘광주의 학살’ 현장을 찍은 금기의 필름을 보여주었다. 이 기록물을 보고 어두운 공간에서 밝은 거리로 나오면, 국민이라는 내 존재가 현실로부터 괴리되었고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해마다 4월은 왔고 사일구도 다가왔다. 수유사거리부터 아카데미하우스가 있는 거리엔 4월 초순부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로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정신 등의 글자가 적힌 현수막들이 걸리기 시작했다. 가로수엔 민주 단체와 대학에서 만든 포스터, 표어들이 바쁘게 붙여졌다. 이때다 싶어 이름을 알리는 정치인들도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별이 바르지만 슬픔은 무겁게 가라앉아 여전히 추운 그곳, 미리 제수를 만들어 묘지 참배를 하는 유족들의 모습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하고 그 중에 허리 굽은 소복 차림의 머리 하얀 할머니. 아마 억울하고 서럽고 원통한 세월을 살아내느라 머리 그리 된 어머님이지 않을까. 사일구 당일엔 최루탄을 쏘고 학생들이 군부독재 타도를 외쳐, 이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었으니까. 어린 학생들은 이날 하루 등교하지 않았다.

4월 18일, 가까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마라톤을 했다. 구호를 외치고 달리는 대학생들. 길가에는 팔짱을 끼었거나 무전기를 든 장정들이 보였다. 백골단? 사복 경찰? 정보원? 아직 수배 중인 학생과 노동운동 쪽의 아무개들을 찾고 있을 눈초리는 갈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다.

1963년 박정희 군부 정권에서 조성한 4·19기념 묘지는 그 후 30년이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국립묘지로 승격되었고, 2006년 ‘국립 4·19 민주묘지’로 현재의 이름을 얻었다. 묘역 B구역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김주열 학생. 그의 흑백 명함판 사진이 묘비 왼쪽 위에 있다.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떠올랐던 학생. 그의 죽음은 이렇게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어리고 푸르른 청년들. 그들이 역사에 선혈로 남긴 평화와 평등 자유의 정신은 영원할 것이다.

기념탑의 글 중 일부를 옮긴다.

1960년 4월 19일 이 나라 젊은이들의 혈관 속에 정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능히 던질 수 있는 피의 전통이 용솨솨 솟아올라고 있음을 역사는 증언한다. 부정과 불의에 항쟁한 수만 명 학생 대열은 의기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세웠고 민주 제단에 피를 뿌린 186위의 젊은 혼들은 거룩한 수호신이 되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시절을 준비하기

믿음과 현실이 불일치하고 어긋날 때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많은 믿음이 무너졌다. 아마 누구도 쉽게 상상해 본 적 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면전에서 침을 튀기며 커피나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모여 수업을 듣고, 떠나고 싶을 때면 저비용항공 티켓을 끊어 동남아로 여행 가는 일이 하루아침에 불가능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아가 매일 일정한 손님이 드나들며 생계를 이어가게 해줬던 가게 영업이라든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며 생활을 이어가는 일도 어느 날 불가능에 가까워질 거라고는 믿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지난해 이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믿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전까지 지녀왔던 삶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후, 어떤 믿음 혹은 희망을 새로이 가지고 살아낼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나아가 그렇게 세상이 멈춰버리자, 유통하는 자금은 온통 재테크 시장으로 빠져 들어갔다. 누군가는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되기도 했고, 누군가는 벼락거지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엄청난 희비가 교차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가 너무도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은 셈이다.

한편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회 전체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지 절실히 알게 된 시절이기도 하다. 사회가 닫히면 내 삶도 닫히고, 사회가 폭주하면 내 삶도 폭주한다. 아무리 자기만의 삶을 일구어나가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도, 세상이 따라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 자기만의 소소한 행복,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더라도, 사회가 그 소확행조차 틀어막아 버릴 수도 있다. 결국 이런 삶의 문제, 혹은 믿음의 문제라는 건 삶을 어떻게 버텨낼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삶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달리 말해, 나의

믿음과 현실이 불일치하고 어긋날 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난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도,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 드물 것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의 삶이 휩쓸려 갔을 뿐, 실제 인생에서 나의 믿음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일도 수시로 일어난다.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 간절히 붙잡고 싶은 연인이 떠나가는 일, 사업이 원하는 대로 잘되지 않거나, 꼭 붙고 싶은 시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인생에 상존한다.

믿음에 배반당하며 성장하기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배반당하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기술을 익혀야만 한다. 모든 삶에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종교의 힘으로 이겨낸다. 누군가는 십년지기 친구와 마음을 터놓으며 버텨낸다. 누군가는 자기만의 골방에서 글을 쓰기도 하고, 누군가는 매일 산책을 나서며, 누군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동에 더 집중한다. 삶이 잘 흘러가기만 한다면, 인생에는 그리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삶의 기술은 마치 폭풍우가 그친 후 가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배반당한 믿음'의 시절을 위해 필요하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팬데믹도 조금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인다. 차례로 백신이 공급되고 있고, 아마 언젠가는 신종플루의 경우처럼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도 나올 법하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잃었던 일상은 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올지도 모른다. 다시 저녁마다 모여 서로 마주 보고 술 마시며 떠들고, 줌ZOOM 화상회의가 추억 속 일이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 홍대 거리와 캠퍼스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새로운 시절을 준비하면서, 삶 속에 새로운 믿음을, 더 잘 견뎌내는 방법을, 삶의 기술을 만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싶다.

우리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믿음이 배반당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끝나지 않을 줄 알았던 청춘 시절도 끝나고, 영원히 곁에 있을 줄 알았던 부모님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영원할 것 같은 호시절과 영광의 기억도 사라지곤 한다.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우울하고, 세상이 온통 적대적으로 느껴지며, 벗어날 수 없는 짜증이 오랜 시간 이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면, 구멍조끼처럼 꺼내 입을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시절은 그런 믿음을 쌓기에 참으로 좋은 때일지도 모른다. 하나의 믿음이 무너진 곳은 또 다른 믿음이 피어오를 토양이 돼주곤 할 것이다.

글 정지우 문화평론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저자

도시의 역사를 말해주는 길 위의 전령들

서울의 현대를 찾아서: 맨홀로 보는 서울의 현대





서울의 근대화·산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십만 개의 맨홀이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서울의 지표면 위에 부설됐다. 이런 맨홀들은 지하 문명과 지상 문명의 접점이라는 본래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려주는 지표로도 기능한다.

서울의 역사를 알려주는 전령

맨홀은 우리 일상생활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토목 시설물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수많은 지하의 시설-수도·전기·가스·통신-을 용이하게 관리하는 데, 맨홀은 없어서 안 될 존재다. 지하에 존재하는 도시의 기반 시설과 지표면 위에 존재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맨홀은 '지하 문명과 지상 문명의 접점'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맨홀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맨홀에 새겨진 다양한 패턴과 설치 주체를 나타내는 휘장, 그리고 맨홀이 부설된 위치는 우리에게 서울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수많은 20세기의 맨홀 하나하나가 실은 서울의 도시사 都市史를 얘기해 주는 전령인 것이다. 그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맨홀에 담긴 역사를 읽어내는 대표적 방법은 맨홀에 새겨진 '휘장'에 주목하는 것이다. 용산구 남영동에서 확인된 수도관 맨홀에는 1918년부터 1926년까지 사용된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부 京城府(일제강점기 당시 서울의 명칭) 1기 휘장이 새겨져 있다(사진 1). 당시 경성부 기록에 따르면 이 휘장은 "확장 일로를 걷는 관리 체계 및 물품에 대한 대외적인 표시 標識에 활용"하고자 제정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맨홀은 어떤 용도로 부설됐을까. 높은 확률로, 이 일대에 경성부가 직

접 건립·경영한 '부영주택府營住宅'으로의 수도 공급이 유력한 사유로 짐작된다. 용산 지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어진 이 주택들은 준공 당초부터 수도가 공급됐던,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주거 환경을 갖췄다. 부영주택지 진입로에 해당하는 길목에 부설된 점, 맨홀에 새겨진 휘장의 사용 시기가 부영주택지 건설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남영동의 맨홀은 식민 행정이 본격적으로 뿌리내리던 시기를 상징하는 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세계적 이벤트가 거대한 맨홀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88서울올림픽 개최에 맞춰 추진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탄생한 '한강양안분류하수관로' 맨홀이 바로 그것이다(사진 2). 가로 2m·세로 2m 거대한 크기의 이 맨홀은 총 연장 54.6km에 이르는 관로의 정비를 위해 한강 남쪽과 북쪽의 물가를 따라 총 908개가 부설됐다. 당초 서울의 하수처리 인프라 정비는 1990년대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컸으나,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서 1982년부터 1987년까지 단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강의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 사람 여러 명이 들어가기도 남을 이 거대한 맨홀 또한 올림픽이 낳은 서울의 '도시계획유산Planning heritage'인 셈이다. 청록색의 철제 덮개에는 맨홀의 일련번호 및 부설 연도와 함께 큼직한 팔각 모양의 서울시 휘장이 새겨져 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의해 오래된 맨

홀이 일부 교체됐으나, 2020년대에 접어든 지금도 망원·잠실·이촌한강공원 등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의 길 위에서는 단기權紀(단군이 즉위한 해인 서력 기원전 2333년을 원년으로 하는 기원) 연호를 쓰던 시기의 상수도 미터기 맨홀(사진 3),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직후까지 서울의 전기 공급을 담당했던 경성전기주식회사京城電氣株式會社의 맨홀(사진 4), KT의 할아버지 격인 체신부遞信部의 '체'자가 새겨진 통신선 맨홀(사진 5)과 같이 과거의 특정한 시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맨홀이 아직도 무수히 발견된다. 맨홀 관리 주체들의 휘장 혹은 패턴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잘 파악한다면, 맨홀의 모양새를 단서로 서울의 도시 발달과 시가지 변천의 추적 또한 가능하다. 일상 속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역사를 돌아보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가깝게는 대만과 일본 등지에서는 맨홀을 주제로 한 '덕후'들의 모임이 개최되고 있다. 맨홀 모양의 과자나 맨홀 무늬를 바탕으로 한 문구류, 다양한 교양서가 발간되는 등 맨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시를 새롭게 즐기는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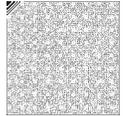
마침 서울에서도 2021년 3월 20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로7017에서 '서울 맨홀'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개최된다. 이외에도 SNS 상에서는 맨홀을 열심히 찍어 올리는 답사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을 탐구하는 색다른 시선, 혹은 새로운 도구로서의 맨홀이 앞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글·사진 김영준 도쿄대학 공학계연구과 도시공학전공 박사과정, 인스타그램 @서울의현대를찾아서 운영자
참고 <경성부사> 3권, 경성부, 1941
<새로 제정된 서울시 휘장>, <동아일보>, 1947년 4월 3일



사람이라는 존엄함의 계단

이태경 감독의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생존 앞에서 이상적인 결론은 없다. 웃음을 지은 서로의 민낯을 보고 나서도 절대 끝나는 법이 없는 싸움이다. 그저 나 하나 똑바로 서서 버티면 될 거라는 기대, 그럼에도 곳곳이 잘하기만 하면 다시 기회가 돌아오리라는 낭만적 믿음은 차갑게 떨어진 동료들의 태도 앞에서 웃음을 잃는다. 나는 그저 형평과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사는 자꾸 효율을 이야기한다. 나는 사람인데, 회사는 나를 감가상각이 필요한 소모품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효율이 아닌 형평에 대하여

정은(유다인)은 7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하청업체로 파견 명령을 받는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그녀를 불편해하고, 그녀는 이론서로 배운 현장 일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1년만 버티면 본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모두 그녀를 경계하지만, 막내(오정세)는 그녀를 돕는다. 동시에 본사는 계속 하청업체를 압박한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전태일 열사가 서거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노동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여전히 괴롭다. 우리 사회는 누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존재해 온 걸까. 의지할 곳도 안길 곳도 없이 어두운 곳에서 서로의 굶은 등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 이태겸 감독의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호들갑 떨지도, 너무 낮게 조아리지도 않는 시선으로 우리가 여전히 외면하고 살아가는 노동자의 현실을 함께 바라보자고 이야기한다. 사회가 이전보다는 아주 많이 평등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부당함과 맞서 싸워야 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외롭다. 나와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영화 속 주인공은 지금 우리가 밟고 사는 현실 속,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정은이 왜 권고사직을 받게 됐는지 구체적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 한때 우수사원이었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사팀 직원의 말로 유추해 보자면 정은이 회사에서 밀려난 이유 역시 그녀의 능력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영화 속 정은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회사에 헌신했지만 이유 없이 해고당한 수많은 노동자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하나의 얼굴이 된다.

그럼에도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

이태겸 감독은 사무직 여성이 지방 현장직으로 파견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버텼다는 기사를 보고 각본을 구상했다고 한다. 영화는 줄곧 험기증을 느끼는 정은의 시선을 따른다. 파견업체 직원들은 줄 하나에 의존해 송전탑을 오른다. 정은이 맞닥뜨린 그곳은 치열한 생존 현장이다. 송전탑은, 세상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홀대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외줄타기에 가까운 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하기도 한다. 노동의 효율은 언제나 기업의 가치이지만, 막상 인간의 존엄은 인정하지 않는 냉정한 현실을 담는다. 정은 역시 1년 전만 해도 하청업체를 부리는 본청 직원이었다. 본청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하청업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하청업체에서 직접 겪고서야 자신조차 그들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가 외면하는 노동 현장의 계열과 차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워라벨’을 논하기에 앞서, 직장은 사실 자신의

정체성과 가까운 곳이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하루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곳이고, 가족보다 직장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직장을 잃는 것은 단순히 월급을 뺏기는 것이 아니다. 생존과 함께 정체성의 뿌리까지 뽑히는 일이다. 정은이 모욕을 견디면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버티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정은을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외부인이라 생각하고 꺾고럽게 대한다. 하지만 유일하게 막내만은, 자신도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이지만, 정은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선의를 보인다. 차가운 세상에서 내민 그 손의 온기는 세상을 오롯이 버티는 힘이 된다.

이태겸 감독은 부당함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해결할 수도, 그 부당함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정은은 두려움을 딛고 홀로 송전탑에 오른다. 허망한 죽음 앞에 오직 나만의 생존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내는 정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파다. 달아나고 싶은 순간에 달아나지 않는 것. 누군가는 벌떡 일어나라고 하지만 주저앉은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순간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하다. 하지만 세상이 주저앉힌 자리에서 달아나지 않는 것, 아이러니하고 슬프지만 타인이 부정하는 나를 나만은 긍정하려는 힘,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인 것 같다. 세상이 나를 밀어내더라도 나는 밀려나지 않겠다는 의지, 가장 두려운 순간을 딛고 서는 그녀의 용기 앞에서 손을 내밀고 싶다.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2021)

감독 이태겸

출연 유다인(정은 역), 오정세(막내 역), 김상규(소장 역), 박지홍(승우 역)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 박도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 사진 제공 영화사 진진

서울예술교육 TA 월간 웨비나

나를 만나는 돌봄과 예술교육

서울문화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동 콜로키움

2021.4.7.(수) 3PM
YOUTUBE.COM/SFACMOVIE





Webzin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sfac.or.kr/literature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sfac.or.kr/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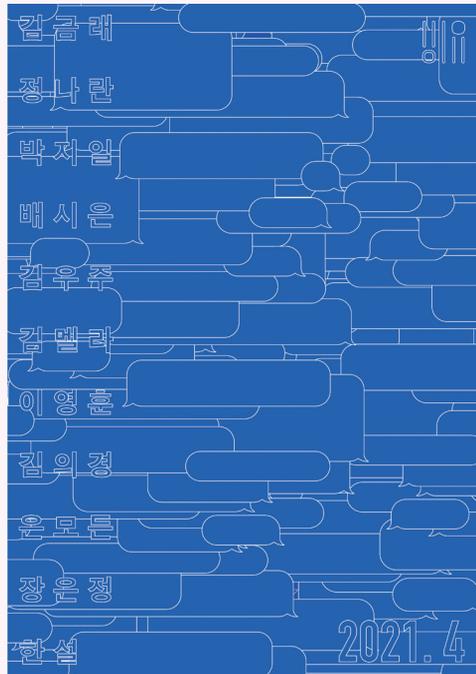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sfac.or.kr/dance



현실을 딛고 선 문장



〈쓰다〉 40호 포스터

여유 있게 책을 들춰보고 몇 문장 읽어보기도 하며 서점에서 시간을 보낸 일이 아주 오래됐다. 책이 급히 필요한데 구하러 갈 시간이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을 살 때는 꼭 동네 서점을 이용하는데도 그렇다. 서점에 들어서면 휴대폰을 꺼내 온라인 서점 장바구니에 담아둔 책이 서점에 있는지 찾는다. 책 대여섯 권을 고르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보통은 근래 화제가 된 책, 이름난 작가의 책을 들고 집에 돌아온다. 그러다 보니 '나만의 작가'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 덜 알려졌으나 좋은 작가, 좋은 책을 주변에 속삭속삭 알리는 재미를 느낀 지 오래됐다. 〈쓰다〉를 통해 여러 작가의 단편을 꼼꼼하게 읽는 경험이 소중한 이유다. 책을 구매할 때와 달리 선입견 없이 작품을 대할 수 있다. 그러다 좋은 문장을 만나면 숨이 턱 막힌다. 입 밖으로 감탄사를 내뱉으며 호들갑을 떨어야 설렘을 가라앉힐 수 있다. [문화+서울] 2020년 7월호에 소개한 최은미 작가의 글을 읽을 때 그랬다. 이름은 익히 들어봤으나 단행본을 집어 들 생각까진 못했던 작가인데 이젠 열렬한 팬이 돼 그의 작품집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쓰다〉 40호를 편집하며 김멜라 작가를 알게 됐다.



한때는 물 데우는 가스값 아끼려고 설치한 이중 계량기 때문에 탈세 혐의로 벌금형도 받아봤고, 한때는 은행 이자보다 갑절의 곱절을 더 준다는 입발림에 넘어가 낙찰계에 아파트 중도금 넣었다가 계주가 들고 나는 바람에 세상 등지고 싶은 절망도 느껴봤으며, 한때는 효 사랑 목욕 봉사란 이름으로 동네 어르신들 무료입장을 시켜드리기도 했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저녁 뉴스에 국민 절반 노후 준비 안됐다! 라는 통계 발표가 나오면 그 준비 안 된 절반에 자기들이 속하는 걸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형편이 되었다.

〈쓰다〉 40호, 김멜라 〈물오리〉 부분

위 인용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이 길지만 리듬이 좋아 막힘없이 읽힌다. 정보량이 많은데 조금도 딱딱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풀어놓은 듯 자연스럽다. '이중 계량기' '낙찰계' '효 사랑 목욕 봉사'와 같은 구체적인 단어가 이 문장을 신뢰하게 하고, 그 신뢰에 힘입어 '그들'이 느끼는 무덤덤한 마음의 풍경이 더없이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멜라 작가는 그와 우리가 아는 목욕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목욕탕의 '그들'이 이해하는 목욕탕을 그린다. 다른 이들의 삶을 자기 체험인 듯 생생하게 그리는 것이 취재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가의 감각은 대사에서도 빛난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절묘한지. "아빠, 내 친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란 소리가 싫고 입에서 안 나온대. 근데 난 안 그래. 난 잘 나와. 아빠, 고마워." 더 듣지 않아도 딸을 향한 아버지의 헌신을 당장 헤아릴 수 있다.

슈퍼 전파자라는 딱지를 붙여 애가 다녔던 데를 무장 공비 침투로 보고하듯 읊어대는 뉴스와 신문의 모가지를 잡아 비틀고 싶었다. 양미 엄마가 양미한테 윙크하고 양미가 자기 회사 사람들에게 퍼뜨렸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덕진은 그럭저럭 숨은 쉬어졌다. 삼사일 전만 해도 괜찮았던 벌고 추어탕이 중환자실로 옮겼단 소리를 들었을 땐 이 좁은 땅 어디로 가 숨어 살아야 하나 앞날이 캄캄했다.

〈쓰다〉 40호, 김멜라 〈물오리〉 부분

김멜라는 작가의 말을 통해 "벌거벗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기 있게 담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됐다고. 그가 그린 목욕탕이 너무나 생생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사건이 자연스레 따라붙었을 것이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앗아갔다. 평생 어떤 신념과 노력으로 목욕탕을 관리해 왔는지와 무관하게 '슈퍼 전파자'의 아버지 덕진은 사람의 눈을 피해 어둠 속을 걸어야 한다. 그가 아무리 살뜰하게 관리해도 을주 사우나에는 물때가 낀다. 그리고 가깝게 지내던 다른 목욕탕 사장의 폐업 소식. 누군가에게는 그저 답답하게 지냈던 한 시절로 기억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통째로 빼앗긴 시절로 기억될 것이다. 같은 사건을 겪으며 누군가는 남들에 비할 수 없이 많은 걸 잃는다. 그리고 보통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다. 감염병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김멜라의 문장으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연극人n

유예되는 삶들에 관하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나는 청소년일 때 내 나이가 자주 부끄러웠다. 술 담배를 사지 못하고, 출입하면 안 되는 공간이 있는 것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제였다. 내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서도, 불법이 아닌 일에서도 떳떳하지 못했다. 척 봐도 나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갈 때면 최대한 짙은 화장과 어른스러운 옷 차림을 갑옷처럼 둘렀다. 왜 그랬을까? 그저 살아온 세월을 세는 것에 불과한 나이는 왜 부끄럽고, 심지어 '언제 들킬지 모르는' 것이 됐을까?

*원고는 웹진 [연극in]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연극in]의 칼럼은 '연극을 넘어서 실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는 아동·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대우하고 있는가?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독자는 생각할 것이다. 판단 능력이 없고, 미숙하고, 덜 자란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동등한 존재일 수는 없다고.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때로는 너무나 사소하고, 혹은 '어른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유예되고는 한다.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 위주의 모진 입시 과정은 물론이고, 생활 패턴, 개인의 욕구, 마음과 감정까지 쉽게 무시되거나 천편일률적으로 부모나 교사, 보호자에 의해 통제된다.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 미성년자가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사실, 아동·청소년은 사회에서 보호가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혹자는 뭘 그렇게까지 말하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차별이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를 보호하는 것 뿐이라고. 그렇다면 SNS에 나올법한 예쁜 가게와 카페들에 '노키즈존'이라는 명패는 왜 붙게 됐을까. 너무 시끄럽고, 통제할 수 없어서? 그런 곳에 아이를 데려오는 여성 보호자가 '맘충'이라서? 그렇다기 보다는 아동이 사회에서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닐까? 아무리 가게에서 진상을 부리는 아저씨들이 많아도 '노아재존'이라는 명패는 붙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노키즈존은 그 자체로 사회에 만연한 어린 나이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린애처럼 굴지 말라"는 비난을 쉽게 주고받는다. 이러한 비난은 어린애처럼 감정적이고, 미성숙하고, 책임감 없이 굴지 말라는 뜻을 함의한다. 하지만 어느 사람이 언제나 이성적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며, 성숙하기만 할까? 이것은 '어린애'만의 특징이라기보단 우리 모두가 언제나 가질 수 있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속성들을 타자화하는 것에 가깝다. 이러한 타자화에서 자유롭다면 비청소년 역시 '어른다움'이라는 박스 안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일상 언어 속 나이 차별 문제 개선 캠페인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어린이에게 경어를 써 달라” 1922년, 제1회 어린이날
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청소년인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주 듣게 되는 일방적 반말

야, 어이, 너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존칭 없이 하대를 당하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는 일

~양/군, ~친구, 투명인간 취급

어린이·청소년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

미자, 급식충, 초딩, 애새끼, ~린이

어리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차별,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말, 하대, 무시, 투명인간 취급은 그만!

어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중하게 존중하라!

우리는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나이주의적인 언어 문화에 문제제기하고 어린 사람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캠페인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나는 시간이 흘러 비청소년이 됐지만, 여전히 나이를 밝히는 일이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20대 초반의 여성인 내게 '어린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금 서투르고, 비이성적이고, 미숙하면 좀 어떨까? 우리 모두는 언제나 그러한 시기를 빼곡빼곡하며 살아내고 있지 않은가?

여기까지 읽고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상 속 차별을 여전히 모르겠다면 사소한 실천을 해보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이를 묻지 말자. 나이로 상대를 판단하고자 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다. 어쩌다 나이를 알게 됐다면, 상대가 나보다 어리더라도 상호 동의 전에는 반말을 사용하지 말자. 나이가 어린 것이 곧 편하게, 혹은 쉽게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쉽게 귀엽다거나, 기특하다고 말하지 말자.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손윗사람에게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금방 표현의 어색함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일상에서 이 정도만 지켜도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차차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글 최유경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유경입니다. 위티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스쿨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창립한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 단체입니다. 저는 위티의 창립과 함께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비상근 활동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dbrud_06@naver.com



춤+여기

그 모든 것은, 우리, 각자의 몸에서 비롯된다

나와, 우리, 세계를 춤으로 잇는, 춤의 학교 최보결

❗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스스로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알 수 없는 결핍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죠. 나이를 먹은 만큼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계속 방황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떡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다 불완전한 인간이 제 고유성이자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를 인정하자,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인간들의 놀이로 인류와 문명이 성장했듯, 놀이가 인간의 생명력이고, 이것이 충족돼야만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놀이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유난히 발달한 인간인 만큼 계속 이야기하죠. 춤으로 놀자고. (웃음) 결국, 저는 놀고 싶은 사람이고 놀이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이에요.

❗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꿈꾸는 공간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꿈을 꾸 것처럼 이곳에 온 많은 사람이 꿈을 꿔왔으면 하죠. 요즘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사람들이 계속 꿈을 꾸게 하고 싶어요. 없던 꿈도 만들고요. (웃음) 그리고 이곳은 많은 이가 연결되고 만나는 장이에요. 오랫동안 무용계에 있으면서 느낀 게, 무용이 살아남으려면 많은 이와 접촉하고 다양한 영역과 연결돼야겠다는 거였어요. 이리저리 섞이고 만나며 더 큰 세계를 경험해야만 다채롭고 풍요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 공간이 만남과 연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오다가, 코로나로 만남이 불가능해진 요즘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리고 있어요.

❗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제가 춤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인의 고유성과 창조성에요. 실제로 제 수업의 대부분이 즉흥으로 이루어져 그것들이 펼쳐지죠. 제가 구조를 제시하면 참여자(일반 시민)들이 그 구조를 기반으로 즉흥으로 살을 채워 넣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해요. 새로운 것으로부터 조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미 있던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발견된 것들을 조합하기도 하죠. 저는 그 모든 것이 각자의 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머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심화 수업의 경우 기본으로 7~8시간씩 하는데, 그건 즐겁지 않으면 해낼 수 없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 춤을 춘다는 건 정말 즐겁다는 거죠. 그렇게 신나게 움직이는 이들을 보며 '몸은 이렇게 경이로운 거구나' '춤이란 이렇게 창조적인 거구나' 깨달아요. 저와 참여자 모두 서로에게서 많은 걸 배우는 거죠.

취재·정리 김연임 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최보결은 동양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적 성찰과 사회 의식적 주제를 예민한 감성과 빠아픈 유머 감각으로 표현하며, 인간의 본성과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몸짓의 원형을 발견해 춤의 언어를 만들어낸다. 최근에는 '춤의 학교' 대표로서 모든 사람과의 춤추는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감과 사랑, 치유, 공동체의 회복을 춤으로 실천하고 있다.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Calendar

04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차유희브
- 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서울예술교육센터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 해당 공연·전시·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Mon	Tue	Wed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배원 첼로 독주회> ● 공연 <너드케렉션 콘서트>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무간도>(~4. 11) ● 연극 <더 라스트 슈퍼히어로>(~4. 11) ● 연극 <유리동물원>(~5. 30) ● 연극 <별이 보이는 마을>(~4. 25) ● 공연 <제19회 한국소극장오페라축제>(~4. 25) 	<p>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로키움 <나를 만나는 돌봄과 예술교육> ● 전시 <맹성규전: SUNDAY ELEVEN>(~4. 30) ● 공연 <트리오 모던하모니 리사이틀> ● 국립국악관현악단 이음 음악제 <관현악시리즈Ⅳ 상생의 숲> ● 뮤지컬 <포미닛>(~5. 23)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7회 도서관주간 기념 서초구립양재도서관 독서문화행사(~4. 18) 	<p>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ICONIQ>(~4. 17) ● 전시 <마이클 케나·김승영 이인전>(~5. 23) ● 공연 <2021 교향악축제-대전시립교향악단> ● 뮤지컬 <광주>(~4. 25) ● 공연 <최진이 피아노 독주회> 	<p>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김용경展>(~4. 23) ● 공연 <2021 교향악축제-수원시립교향악단> ● 공연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4월> ● 공연 <일이관지(一以貫之) 명인>(~4. 22) ●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2021 <신지아,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콘서트>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임상희 피아노 독주회> 	<p>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금난새의 엔니오 모리코네를 위하여> ● 공연 <2021 교향악축제-광주시립교향악단> ● 무용 <더 라스트 엑시트>(~4. 21) ● 공연 <하이트 교향곡 전국 시리즈 5> 	<p>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2021 교향악축제-포항시립교향악단> ● 서울돈화문국악당 <2021 산조대전-이재하, 김효영> ● 2021 서울시향 <오스모 벤스케의 베토벤 교향곡 1번>(~4. 22) ● 공연 <수요음악방-팝페라>
<p>26</p>	<p>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W창단기념음악회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랜드 콘체르토> ●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5. 2) ● 연극 <안녕, 여름>(~6. 20) ● 연극 <빈센트 리버>(~7. 11) 	<p>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김재훈 비올라 독주회> ●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5. 16)



Thu	Fri	Sat	Sun
1	2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극관현악단 제347회 정기연주회 <만나다, 봄> ● 강동문화재단 제182회 목요일예술무대, 와이즈발레단 <발레야 놀자> ●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오노프 콘서트 I. <정재형> ● 공연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브: 디 오케스트라>(~4.3) ● 제30회 신춘문예 특별기획전 <강신무>(~4.4) ● 연극 <스팅 인 어 룸>(~4.11) ● 연극 <용기 없는 일주일>(~4.11) ● 연극 <나무는 서서 죽는다>(~4.11) ● 뮤지컬 <시카고>(~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아이프리즘유 vol.15' <호아×이세계> ● 공연 <비바 무지카 정기연주회> ● 연극 <가면을 벗다>(~4.11) ● 뮤지컬 <도서관에 간 사자>(~5.29) ● 뮤지컬 <소년 이순신>(~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너 김철호 & 테너 이기용 듀오 리사이틀 <위로와 희망> ● 공연 <하윤주 콘서트_바야흐로, 봄이었다.> ● 공연 <김민석·김바울 듀오 콘서트>
8	9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돈화문국악당 <2021 산조대전-문경아> ● 공연 <춘하추동 명인명창_강은경> ● 공연 <포르테 디 콰트로 in Orchestra-Special Concert> ● 연극 <다방>(~4.25) ● 무용 <히트 앤 런>(~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2021 교향악축제-부산시립교향악단> ● 2021 국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여행>(~4.11) ● 뮤지컬 <레이디디버그>(~5.9) ● 연극 <사랑일까>(~5.31) ● 연극 <지구가식탁해가지구>(~4.11) ● 연극 <우투리: 가공할 만한>(~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2021 교향악축제-서울시립교향악단> ● 국립국악관현악단 이음 음악제 <2021 오케스트라 이음> ● 공연 '오페라 특특' <모차르트: 바스티앙과 바스티엔> ● 공연 <디즈니 인 콘서트>(~4.11) ● 공연 <자락: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4.11) ● 연극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4.11) ● 연극 <양갈래머리와 아이엠에프>(~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오페라스타> ● 공연 <2021 교향악축제-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 ● 공연 <소프라노 윤해진 독창회>
15	16	1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2021 교향악축제-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 공연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연주회> ● 공연 <2021 서울시향 오스모 벤스케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1번>(~4.16) ● 제5회 C2Dance 정기공연 <모피를 입은 난 여자>(~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2021 교향악축제-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서울시무용단 <감괘>(~4.17) ● 공연 <디어클라우드 콘서트_4월의 숨>(~4.25) ● 공연 <원진경 첼로 독주회> ●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제173회 정기연주회 <봄, 봄>(~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2021 교향악축제-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공연 <순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 역사인기 뮤지컬 갈라 콘서트 <뮤지컬 역사 특: 그날>(~4.18) ● 국립창극단 <절창>(~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2021 교향악축제-원주시립교향악단> ● 공연 <고흐 VS 고갱_고흐의 귀는 누가 잘랐나?> ● 공연 <순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22	23	2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돈화문국악당 <2021 산조대전-원완철, 이지영> ● 공연 <2021 교향악축제-KBS교향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돈화문국악당 <2021 산조대전-박다울, 김용성> ● 연극 <바다쓰기>(~5.8) ● 연극 <정의의 사람들>(~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돈화문국악당 <2021 산조대전-김준영, 이영섭> ● 마술극 <찰리아저씨의 마술공정>(~4.25) ● 공연 <김현정 글로리아 피아노 독주회> ● 2021 서울시향 실내악 시리즈 II <타악 앙상블> ●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채수정의 흥보가-박록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이승진 첼로 독주회> ● 서울돈화문국악당 <2021 산조대전-김상연, 이태백> ● 공연 <서주희 피아노 독주회>
2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72회 정기연주회 <방랑의 여정> ● 공연 <정정호 바이올린 독주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회 서울연극제 공식참여작 <나는 지금 나를 기억한다>(~5.9) ● 공연 <레미제라블 콘서트>(~5.9) ● 연극 <하길동전>(~5.9) ● 뮤지컬 <창업>(~5.30) 		



연극 <델타보이즈-앙코르 공연>

돈 욕심도, 열정도 제로인 일록에게 시카고에서 날아온 친구 예건이 뜻밖의 제안을 한다. 바로 남성 사중창 대회에 참가하는 것. 처음엔 어이가 없었지만 일록은 은근히 끌리게 된다. 매형에게 얹혀사는 일록,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한 예건, 공기머리로 공기 파는 열혈남아 대용, 그리고 와플 노점남 준세까지 모여 만드는 오합지졸 사중창 도전기가 무대에 오른다.

일시 3월 12일(금)~4월 4일(일), 금 오후 7시, 주말 오후 4시 | **장소** 극장동극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10-4547-0555



Anteroom Seoul×김진희

전시 <1000번의 손-짓>

찰나의 순간을 기록하는 사진이 수직적 시간성을 갖는다면 김진희 작가가 사진 위에 수놓은 바느질 행위는 오랜 시간과 노동이 함축된 수평적 시간을 말한다. <1000번의 손-짓>에서 작가는 자신의 사진 위에 바느질하는 '여성의 몸-짓, 손-짓'에서 일상의 노동과 되풀이되는 반복의 힘, 즉 관계라는 메시지가 공명하기를 기대한다.

일시 3월 17일(수)~4월 18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 | **장소** 안테룸 서울 Gallery 9.5 | **관람료** 무료 | **문의** 0507-1328-2395



유봉상 개인전

<Immergé-Seeping into space>

유봉상은 오랜 시간 '못의 작가'로 불렸다. 전시는 '못'이라는 딱딱한 금속으로 표현하는 장엄하면서도 평화로운 작품의 이미지가 주는 역설적 표현과 이 너머에 담긴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일시 3월 25일(목)~4월 14일(수) | **장소** 오페라 갤러리 서울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46-0070



무용 <제35회 한국현대춤 작가 12인전>

1987년부터 진행한 <한국현대춤 작가 12인전>이 제35회를 맞았다. 탄탄한 기량과 작가 정신을 바탕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한 중견 무용가들이 모여 한 무대에서 한국 춤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일시 3월 27일(토)~4월 4일(일) |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2263-4680



뉴미디어 아트 공모 선정작가 12인 특별전

<내일의 예술>

예술이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결합으로 더욱 풍성한 '표현력'과 '메시지 전달 방법'을 획득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인다. 열두 작가를 선정해 키네틱 장치·인터랙티브·사운드아트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감각의 확장을 이끌고, 인간의 삶을 이야기한다.

일시 3월 31일(수)~4월 18일(일) |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580-1300



제30회 신춘문예 특별기획 연극

<강신무降神巫>

1990년 장일홍 작가의 신춘문예 당선작을 선보인다. 제주도 어느 산간 마을에 어머니와 외동딸 탄실이 살고 있다. 세습무인 어머니는 딸도 무당이 돼 가업을 잇길 바라지만 탄실은 이를 거부하고 서울로 올라간다. 어느 날 탄실은 목매어 죽은 남자의 시체를 보고, 환청으로 질편한 곳 소리를 듣는 순간 신이 내린다.

일시 4월 2일(금)~4일(일),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3시·6시, 일 오후 3시 | **장소** 대학로 알과책 소극장 | **관람료** 1만 원 | **문의** 02-322-3658



연극 <사랑 인 어 룸>

멀지 않은 미래, 심각해진 팬데믹 상황 이후에도 살아남은 지니. 그녀에게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온다. 죽은 쌍둥이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리언이다. 리언은 마치 제니가 살아 있는 것처럼 언니 제니에 대한 디지털 기억을 업데이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일시 4월 2일(금)~11일(토), 화~금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월 휴관) |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10-9641-5649



뮤지컬 <도서관에 간 사자>

도서관에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서 선생님이나 아이들은 무섭고 놀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자와 놀기를 좋아하게 된다. 도서관장님이 쓰러진 모습을 본 사자는 “으르르 크앙” 큰 소리를 내 도서관에서 쫓겨나는데... 아이들은 사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일시 4월 3일(토)~5월 29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 **장소** 북촌아트홀 | **관람료** 2만 5천 원 | **문의** 02-988-2258



2021 서울예술교육 TA 월간 웨비나(1차)

서울문화재단-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동 기획 콜로키움

“나를 만나는 돌봄과 예술교육”

서울예술교육의 돌봄 영역과의 결합에 따른 상호 이해와 지향점을 모색하고 향후 돌봄과 예술교육이 공유하는 가치와 현장 실천가들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한다.

일시 4월 7일(수) 오후 3시~6시 | **장소** 생중계 접속 채널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스팍TV' | **대상** 예술교육가, 돌봄 기관 종사자 등 돌봄과 예술교육의 결합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문의** 02-3290-7412-7427



맹성규 개인전 <SUNDAY ELEVEN>

맹성규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기독교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작품으로 구현한다. 그는 전시로 언어와 사물을 상징으로부터 분리하는 해체 과정을 제시한다. 종교적 상징으로부터 분리된 언어와 사물은 개방된 기표로, 관객의 경험에 의해 새롭게 의미화될 가능성을 남긴다.

일시 4월 7일(수)~30일(일), 수~일 오후 12시~7시(월·화 휴관) | **장소** 스페이스 윌링먼딜링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97-7893



뮤지컬 <포미닛츠>

희망의 빛줄기 하나 없는 감옥 안. 위태로운 만큼 정반대 모습을 한 두 여성이 어느 날 피아노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다. 서로를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의 여정은 관객을 격정적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이끌며, 특별한 감동과 위로를 선사한다.

일시 4월 7일(수)~5월 23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4시·8시, 주말 오후 2시·6시(월 휴관) | **장소** 정동극장 | **관람료** 7만 원 | **문의** 02-751-1500



서울시무용단 <감괘>

역학에서는 자연계와 인간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기호로 팔괘를 사용한다. 팔괘 중 하나인 감괘는 하나의 양이 두 음에 빠져 있는 형상으로 험난한 운명과 물을 상징한다. 감괘가 중심이 되는 8가지 괘를 모티프로 각 장면을 구성했다. 물의 이치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인간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일시 4월 16일(금)~17일(토), 금 오후 8시, 토 오후 5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관람료** VIP석 10만 원,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 **문의** 02-399-1097



국립창극단 <절창>

국립창극단은 관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2030 젊은 소리꾼들과 함께 판소리의 현재와 미래를 감각적으로 사유하는 <절창> 시리즈를 준비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국립창극단 김준수와 유태평양. 창극 배우이기 전, 오랜 시간 판소리를 몸과 정신에 새겨온 소리꾼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되새기며 동시대 흐름에 맞는 진중하고도 참신한 '소리 판'을 선보인다.

일시 4월 17일(토)~18일(일) 오후 3시 |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 **문의** 02-2280-4114



역사있기 뮤지컬 갈라 콘서트

<뮤지컬 역사 특! 그날>

공연은 역사 뮤지컬의 딱딱함과 무거움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한다. 역사 MC가 나와 진행을 하면서 김구·윤봉길·이봉창·안중근이 메신저 단체 특방에서 만나는 상상력과 재미있는 구성으로 무대를 꾸린다.

일시 4월 17일(토)~18일(일) 오후 3시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 **관람료** 1층 4만 4천 원, 2층 3만 3천 원 | **문의** 1544-5955



서초교향악단 화요 콘서트

<하이든 교향곡 107 전곡 시리즈>

서초문화재단은 3월부터 7월까지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하이든 교향곡 전곡 107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4월에는 호르니스트 이석준이 협연 무대를 펼친다.

일시 4월 20일(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7천 원, 서초구민 3천 원 | **문의** 02-3477-2805



구로문화재단 <수요음악방 시즌3-팍페라>

<Aladin> <Man of La Mancha> <모차르트> 등 유명한 뮤지컬 넘버들로 꾸며지는 팍페라 공연이다. 세련된 무대 매너와 아름다운 음색의 팝 소프라노 송은혜와 중후하고 따뜻한 음색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감성 바리톤 황호수가 무대에 오른다.

일시 4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오류문화센터 | **관람료** 1만 5천 원 | **문의** 02-2614-7970



연극 <정의의 사람들>

"우리의 정의는 모두에게 보편타당한가? 나의 정의는 남의 정의보다 우위에 있는가?" 정의와 인간애 사이에서 고뇌하고 행동하는 젊은이를 그린 프랑스 문학가 알베르 카뮈의 대표작 <정의의 사람들>을 연극으로 구성했다. 서울시극단 고유의 감성으로 풀어낸 <정의의 사람들>을 통해 시대의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한다.

일시 4월 23일(금)~5월 9일(일), 화~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3시(월 휴관) |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관람료** R석 5만 5천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5천 원 | **문의** 02-399-1133



연극 <안녕, 여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상실의 시대'에 평범한 부부와 주변 인물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삶에 대한 의미를 전하며 공감과 위로를 주는 작품이다. 2016년 초연 이후 약 5년 만의 컴백으로 따뜻한 감동과 웃음을 관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일시 4월 27일(화)~6월 20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4시·8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6시(월 휴관) | **장소**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 |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 **문의** 1577-3363



4.7(수)
19:30

롯데콘서트홀
관현악시리즈Ⅳ
상생의 숲

예술감독
김성진

지휘
김덕기

관람료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롯데콘서트홀
1544-7744
인터파크
1544-1555

Orchestra Series IV Forest of Harmony



국립극장악단

관현악시리즈Ⅳ 상생의 숲

이음음악제

2021.4.7 WED 19:30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0-2021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금천예술공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화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한국공연예술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3월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뽑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시민청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코로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의 문화예술정책
서울의 문화예술 공간과 프로그램이 여전히 많음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어린이를 위한 공연도 소개 해주었으면 ~ ^^

© [문화+서울]은 웹진(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잡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엽서

남하준 님(서울특별시 광진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시민청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코로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의 문화예술정책
서울의 문화예술 공간과 프로그램이 여전히 많음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어린이를 위한 공연도 소개 해주었으면 ~^^

편집 후기

어느새 봄이네요.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어렵고 낯선 단어와 표현이 많았던 달,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개편된 지면처럼, 4월엔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마음을 채우길 기대합니다. 이아림 객원 기자
소개하지 못했지만, 성심성의껏 보내주시는 엽서에 쓰인 단어 '감사'가 마음을 찌릅니다.
감사합니다(꾸벅). 장영수 객원 기자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 **서울라이브** ✧

인디뮤직 D.I.Y 프로젝트
라이브 기획공연

WWW.SFAC.OR.KR 02-333-0246

✧
*
공모기간

2021. 3. 26. — 4. 12.



인디
시리즈
프로젝트

서울문화재단

NEOLIVE
SEOULIVE